

정책연구 보고서

외국어학과 발전방안

2015. 8. 31.

미래위원회

- 목 차 -

I. 서론	3
II. 교육과정 내실화	6
1. 전공 교육과정	6
2. 연계전공	11
3. 교과목 이수체계	18
4. 단계별 수준별 어학교육	25
5. 현장연계교육	30
6. 전략지역전문가 HUFS 아너스 프로그램	33
7. 입시연계 5년 학·석사과정	36
III. 교육·연구지원 강화	39
1. GPS 3.0	39
2. CTL 3.0	44
3. HUFS 글로벌 에이전트	50
4. 연구소	53
5. 기숙사 프로그램	60
IV. 외국어학과 발전방향	63
V. 결론	73
<참고자료>	74

I. 서론

1. 취지

- 우리 대학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글로벌 융복합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탁월한 외국어능력과 다양한 전공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음.
-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고자 외국어학과의 시대적 역할 및 당면한 도전 요인을 심도있게 진단하고 교육과정, 교육·연구지원, 학제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함.

2. 외국어학과의 위상과 역할

- 우리 대학의 외국어학과는 지난 60년간 시대에 앞서 한국사회의 국제화와 세계화에 기여해 왔음. 외국어학과 출신 동문들 다수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음.
- 영어과·불어과·중국어과·독일어과·러시아어과 개설로 출범한 우리 대학은 현재 45개 외국어를 가르치는 47개의 외국어 관련학과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위상을 갖는 대학으로 발전해 왔음.
- 우리 대학 전체 학생 정원 중 외국어학과 소속 학생의 비율이 62%이며, 비어학 전공 학생의 외국어 이중전공 및 부전공 선택 비율은 47%에 달하고 있음.
- 외국어학과는 질적·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왔으며 타 학문분야와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융복합 역량을 축적해 왔음.

3. 외국어학과의 교육환경 변화와 도전 요인

가. 외적 도전 요인

-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전공별 사회적 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정원의 축소 또는 계열 이동을 유도하고, 새로운 융합형 전공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주요 기업들의 독자적 지역전문가 양성, 스마트교육, 사이버교육 등 학습수단의 보편화로 우리 대학 외국어학과의 독보적 위상은 약화됨.
- 융복합적 사고 및 글로벌 역량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외국어학과는 타

학문영역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임.

- 위와 같은 환경 변화에 우리 대학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학’의 새로운 위상 정립을 통한 재도약의 기틀 마련이 요구됨.

나. 내적 도전 요인

- 모든 외국어학과들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요구되며 나아가 각 외국어학과별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변화 모색과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함.
- 그동안 우리 대학은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내외 인턴십 및 현지연수 등을 확대 운영해 왔으나 학업과 취업을 연계한 지원 체제는 정립하지 못한 상태임.
- 갈수록 높아지는 사회적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인재 배출을 위한 교육과정 및 지원체제가 적시에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4.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적 대안 모색

우리 대학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 내실화, 교육·연구지원 강화, 그리고 외국어학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가. 교육과정 내실화

- 외국어 및 지역학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함. 이와 관련하여 연계전공 교육과정 개선, 교과목 이수체계 정립, 단계별 수준별 어학교육 강화, 현장연계 교육과정 확대, 전략지역전문가 HUFPS 아너스 프로그램 운영, 입시연계 5년 학·석사과정 도입 등을 추진함.

나. 교육·연구지원 강화

- GPS 3.0을 통한 학생지도 시스템 개선, CTL 3.0을 통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강화, HUFPS 글로벌 에이전트 운영, 연구소 기능 강화,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교육 및 연구지원을 강화함.

다. 외국어학과 발전방향

- 우리 대학의 고유 가치를 구현하는 발전방향 설정 및 세계적 외국어 교육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외국어학과 발전방향을 제시함.

5. 기대효과: 외국어학과의 재도약 및 새로운 외대형 인재 양성

- 우리 대학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전략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어교육 부문에서 선도적 위상을 유지하고 또 다른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 외국어학과 발전방안의 추진은 세계 공용어, 지역별 주요 언어, 전략언어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전기를 제공할 것임.
- 외국어학과 교육체계의 혁신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높임으로써 탁월한 어학능력과 창의적인 사고력, 융복합 능력을 두루 갖춘 외대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함.
- 외국어교육의 내실화는 우리 대학의 사회적 기여도 및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학교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임.

II. 교육과정 내실화

1. 전공 교육과정

가. 취지

- 외국어학과의 전공교과과정과 이수체계에 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함.
- 졸업생의 외국어 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함.
-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교과과정을 확립함.
- 타 학문분야와의 새로운 융복합 전공 모형을 개발함.

나. 현황과 문제점

1) 외국어전공 교육과정: 해외 대학 사례 분석

- 해외 대학들의 경우 외국어와 지역학 과정의 영역별 이수 요건이 지정되어 있음.

[표 1] 외국어 교육 과정

대학	졸업학점수	외국어 교육 과정	외국어 이수 요건
Stanford (미국)	180 (quarter제)	- First Year X ¹⁾ - Second Year X - Third Year X (회화, 문법, 강독 등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학년별, quarter별 외국어 과정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진급. ▪ 학생 수준에 따라 총 24-45학점(학기제 환산 시 16-30학점)의 전공언어를 이수.
Maryland (미국)	120	- Beginning X - Intermediate Spoken X I, II - Intermediate Written X I, II - Advanced X I, II (중급과정에서 Spoken, Written 과목으로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급 이상에서 6과목(18학점) 이상 이수(초급은 요건에 포함시키지 않음). ▪ Spoken과 Written 과정을 동시에 이수해야 함. ▪ 하위 과정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를 이수할 수 있음.
SOAS (영국)	16 Units (1 unit은 6학점에 해당)	- Elementary X 1,2 - 1년 현지교육 ²⁾ (의무) - 작문, 회화, 고급 강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학년별 외국어 과정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진급. ▪ 총 4 units(24학점) 이상의 전공언어 이수.
동경외대 (일본)	125	- 지역언어 I, II, III (회화, 문법, 강독을 통합한 종합 과목으로 구성. 예: 프랑스어 I은 주당 문법 1, 강독 1, 회화 3시간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언어를 최소 28학점 이수 ▪ 하위 과정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를 이수할 수 있음.

주 1) X는 특정 외국어 과정을 의미(예: Korean, Chinese 등)

2) SOAS 교육과정 3년에 현지교육 1년이 추가되는 형태

○ 해외 대학 외국어 교육 과정의 특징

- 강좌가 단계별로 구분되어 하위 단계를 이수해야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음.
- 각 단계별 과정이 영역별(회화, 문법, 강독 등)로 세분되어 있지 않고 통합 단위로 편성되어 있음.
- 전공 언어별 최저 이수 학점은 20-30학점 정도임.
- 최상위 강좌의 이수 여부가 전공 언어의 졸업 인증 요건에 해당함.

[표 2] 외국어 교육의 표준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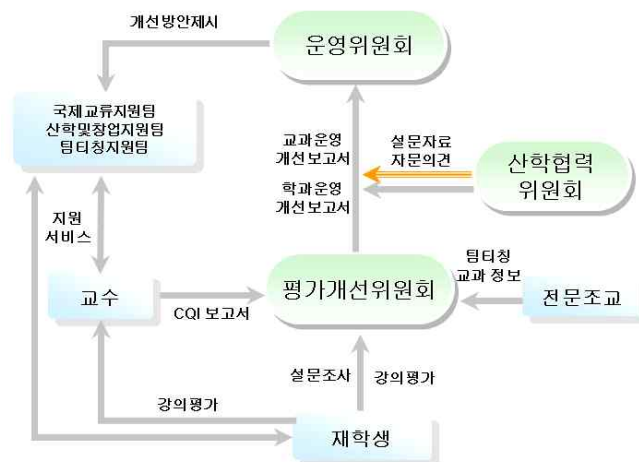
대학	운영 방식
Stanford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교육과정이 Beginning(First-Year), Intermediate(Second-Year), Advanced(Third-Year) 과정으로 구성됨. 전공 학생들은 Advanced Level까지 학습함. ▪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oral/writing 능력 수준이 언어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음. ▪ 외국어 교육과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Language Center가 설치되어 있음.
Maryland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교육과정이 Beginning, Intermediate, Advanced level 등으로 표준화 되어 있음. ▪ 단계별 이수가 필수임.
SOAS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학년별 외국어 과정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진급할 수 있음. ▪ 2학년에서의 현지교육과정이 의무화되어 있음.
동경외대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교육과정이 A(1학년), B(2학년), C(3학년 이후) 단계로 표준화 되어 있음. ▪ 단계별 이수가 필수임.

[표 3] 외국어(학) 전공자에 대한 지역학 교육 과정

대학	졸업학점 수	지역학 교육 과정	지역학 이수 요건
Stanford (미국)	180 (quarter제)	- 문학, 역사,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역사, 문화 관련 개설과목에서 22-25학점 이수함.
Maryland (미국)	120	- 어문학 - 역사/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어학, 역사/문명 등의 영역에서 12학점 이상 이수함. ▪ 전공 영역(언어+지역학)의 최저 이수학점은 39학점임.
SOAS (영국)	16 Units (1 unit은 6학점에 해당)	- 문학,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학은 선택과목임.
동경외대 (일본)	125	- 지역기초 - 언어문화학부 또는 국제사회학부의 전공 트랙에서 전문 프로그램을 이수(우리 대학의 이중전공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학 필수 교과목은 6학점임. ▪ 전공별 전문프로그램에서 지역학 교과목들을 추가로 이수함.

2) 현장밀착형 교과과정: 국내 대학에서의 운영 현황

- 교과과정 운영 동기 및 취지
 -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교과과정을 개편한 사례가 대다수임: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NEXT(IT학과 전공역량 강화사업), NURI(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CK(대학 특성화사업) 등
 - 대학 교육의 수요자인 산업체의 요구에 맞추어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졸업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함.
- 교과과정 개편 과정
 - 산업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산학협력위원회를 학과별로 운영함.
 - 2-3년 주기로 산업체와 졸업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과과정(교과목 구성과 교육 내용 등)을 개편함.
 - 설문 조사, 산업체 인사 인터뷰, 졸업생 초점 그룹(focus group) 추적 인터뷰 등을 통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함.
 - 졸업생이 갖추어야 하는 하드 스킬(영역별 전공 능력, 외국어 능력, 자격증 등)과 소프트 스킬(협업능력, 소통능력 등)의 상대적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꾸준히 변화시키는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요구됨.
- 교육과정의 구성
 -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운영함.
 - 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교과과정으로 편성함.
 - 현장실습, 인턴십, 산업체 겸임교수 활용, 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설계 프로젝트 등



[그림 1] 국내 대학에서의 현장밀착 교과과정 운영을 위한 전공 교육 개선 체계 사례

다.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선방안

1) 외국어 기반 융복합 지역전문가 교육과정 구성

- 핵심역량 기반 전공 교육과정 재편
 - 해외지역 전문가로서 분석창의역량, 융복합글로벌역량, 국제실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목, 이수체계, 교육방법 등을 규정함.
- 전공 및 커리어 별 교육과정 3.0 개발 운영
 - 외국어 전공별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3.0 구축으로 전공 경쟁력을 강화함.
 - 외국어 및 커리어 유형에 따라 이중전공제, 심화전공제, 연계전공제, 융복합전공제를 운영함.
 - 심화전공의 선택적 전문화 과정과 융복합전공의 다양한 트랙 유형을 개발함.
 - 국제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연계교육과정 개발 및 해외 연수/인턴십을 확대 운영함.
 - 학생의 전공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 학습 지도를 위한 교육과정 3.0 이수 경로 모델을 개발함.

[표 4] 외국어전공 학생을 위한 전공 트랙 유형(예시)

이중전공제		2전공 (42학점) 사회과학, 상경, 공학, 자연과학, 인문학, 어문학 등		교양 (32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연계 교과과정 • 해외연수 및 인턴십
전공심화제	외국어 전공 (54학점)	심화전공 (16학점) 언어문화트랙 (언어정보, 글로벌커뮤니케이션, 문화) 국제사회트랙 (지역사회, 국제관계학)	부전공 (21학점)	교양 (32학점)	
연계전공제		연계전공 (42학점) 광역지역학, 무역, 문화콘텐츠 등		교양 (32학점)	
외국어기반 융복합전공제	외국어 전공 (42학점)	융합전공 (24학점) 광역지역학 + 2전공 응용학	2전공 (30학점) 사회과학, 상경, 문화, IT	교양 (32학점)	

2) 외국어 교육과정의 표준화

- 학년별/단계별로 학교 전체 또는 언어 그룹별 외국어 교과목 명칭과 교육 내용을 표준화함.
-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외국어 능력 수준을 규정함.
- 선수 과목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함.

3) 전공 외국어 집중이수제 도입 검토

- 외국어 전공의 1학년 과정에서 주당 5일간 매일 지정된 시간에 회화, 문법, 강독을 집중 교육하는 체계의 도입을 검토함.

4)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현지/현장 교육체계 구성

- 각 트랙별로 목표 인재상을 설정하고 졸업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참여 기업/기관들을 선정하여 산학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함.
- 산학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졸업생 능력에 대한 요구 조건(하드/소프트 스킬)을 조사함.
- 요구 조건을 반영하여 융복합 전공과 현지/현장 교육의 교과목 구성과 교육 내용, 영역별 목표 수준 등을 설정함.
- 트랙별 졸업 요건을 설정함.

5) 교육 지원 체계

- 학생 지도 강화
 - 재학생들이 각자의 영역별 이수 현황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교과목 이수현황의 전산화를 추진함.
 - 수강 신청 전에 지도교수(또는 조교)와의 상담을 통해 수강 과목을 점검함.
- 산학협력운영위원회 구성
 - 졸업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참여 기업/기관들을 선정하고 학과 또는 단과대학별로 산학협력운영위원회를 조직함.

라. 기대효과

- 졸업생의 외국어 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외국어 교육과정 구축함.
- 사회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교과과정을 도입함.
-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제고함.
-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수주를 위한 기반을 확립함.

2. 연계전공

가. 취지

- 제1전공 이외에 타 학과 전공이나 연계전공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학습기회 제공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전통적 학문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분야의 이론 및 실무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
- 이중/연계 전공 등을 통해 취업 경쟁력의 강화와 취업의 질적 향상 및 장기 경력 관리 등에 유용한 분야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의 현행 9개 연계전공은 학생 참여 부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새로운 연계전공의 개설이 필요함.
- 상경계열 학과들은 수강인원 제한으로 인해 이중전공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연계전공 개설을 요구하고 있음.
- 우리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무역, 벤처·창업, 개발협력 등 3개 부문의 연계전공의 신규 개설을 검토함.

나. 현황과 문제점

1) 현행 연계전공 개설 현황

-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에 9개 연계전공을 개설하고 있음.
 - 2015년 이전 브릭스(BRICs), EU, 동북아, 문화콘텐츠학, 기록·문화유산관리학, 글로벌IT,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등 7개 연계전공을 개설하였고, 2015년 1학기에 융복합소프트웨어, 국가리더 등 2개 연계전공을 새로이 개설하였음.
- 분야별로는 지역학 관련 3개, 기록과 문화콘텐츠 관련 2개, 법학 관련 1개, 공학 관련 2개, 한국어 교육 1개로 구분됨.

2) 현행 연계전공 운영현황

- 학생들의 참여 부진
 - 2015년 1학기 현재 전체 9개 연계전공에 대한 2~4학년 총 등록학생 수는 728명으로 전공 당 인원은 80.9명에 불과하며 전공별 편차가 극심함([표 5] 참조).
 - 2015년 이전 개설된 7개 전공은 총 등록학생 수가 635명이며 전공 당 90.7명으

로 10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100명 이상인 연계전공은 EU(135명)와 문화콘텐츠학(278명) 등 2개에 불과함. 이어 브릭스 75명, 한국어교육 69명, 동북아 57명의 순이며, 기록·문화유산관리학은 20명, 글로벌IT는 1명에 불과하여 이 2개는 현재 연계전공으로서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임.

- 학년 당 등록인원도 문화콘텐츠학 92.7명, EU 45.0명, 브릭스 37.5명을 제외하면 모두 25명 이하임. 3~4학년이 등록하는 브릭스의 경우도 4학년은 57명이나 3학년은 1/3인 18명에 불과함.
- 연계전공에 개설된 강좌도 학생 참여(비연계전공 수강생 포함)가 전반적으로 매우 부진하여 2015년 1학기 105개 강좌의 총 수강인원은 1,644명으로 강좌 당 15.7명이며, 특히 글로벌IT, 기록·문화유산관리학, 동북아, 브릭스 연계전공의 강좌 당 수강인원은 10명 이하에 불과함([표 6] 참조).

[표 5] 연계전공 등록인원 현황 (2015년 1학기 현재)

구분	2 학년			3 학년			4 학년			총계	학년 당 평균인원		
	서울	글로벌	소계	서울	글로벌	소계	서울	글로벌	소계		서울	글로벌	소계
EU	15	27	42	21	19	40	32	21	53	135	22.7	22.3	45.0
글로벌 IT	-	-	-	-	1	1	-	-	-	1	0.0	0.3	0.3
기록·문화유산 관리학	-	3	3	-	10	10	-	7	7	20	0.0	6.7	6.7
동북아	12	6	18	11	3	14	19	6	25	57	14.0	5.0	19.0
문화콘텐츠	29	58	87	36	45	81	65	45	110	278	43.3	49.3	92.7
브릭스	-	-	-	12	6	18	46	11	57	75	29.0	8.5	37.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2	1	13	31	-	31	25	-	25	69	22.7	0.3	23.0
소계	68	95	163	111	84	195	187	90	277	635	131.7	92.5	224.2
연계전공 당 평균인원	11.3	15.8	27.2	15.9	12.0	27.9	26.7	12.9	39.6	90.7	21.9	15.4	37.4
국가리더*	13	14	27	-	-	-	-	-	-	27	13	14	27
융복합 소프트웨어*	30	36	66	-	-	-	-	-	-	66	30	36	66
소계	43	50	93	-	-	-	-	-	-	93	43	50	93
연계전공 당 평균인원	21.5	25	46.5	-	-	-	-	-	-	46.5	21.5	25.0	46.5
총계	111	145	256	111	84	195	187	90	277	728	174.7	142.5	317.2
전체 평균인원	13.9	18.1	32.0	15.9	12.0	27.9	26.7	12.9	39.6	80.9	21.8	17.8	39.6

자료 교무처 자료에서 작성.

- 1) CK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광역특화 연계전공은 제외하였음.
- 2) 브릭스 연계전공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3학년에 등록하며 2학년 소계 평균에서 제외하였음.
- 3) * 표시 연계전공은 2015년 1학기에, 나머지는 그 이전에 개설됨.
- 4) 빈 칸은 등록학생이 없음을, - 표시 칸은 해당 사항 없음을 의미함.

[표 6] 연계전공 개설강좌 수강인원 현황 (2015년 1학기, 양 캠퍼스)

연계전공	강좌 수	총 수강인원	평균 수강인원
EU	20	247	12.4
글로벌 IT	3	15	5.0
기록·문화유산관리학	8	52	6.5
동북아	16	141	8.8
문화콘텐츠학	24	655	27.3
브릭스	10	75	7.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4	263	18.8
국가리더	6	70	11.7
융복합소프트웨어	4	126	31.5
총계	105	1,644	15.7

자료, 주 [표 5]와 동일.

- 운영상 문제점으로 인해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 팽배
 - 2015년 6월 양 캠퍼스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연계전공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운영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연계전공에 대한 홍보 및 관련 자료 부족, 커리큘럼 부실, 불성실한 수업 운영, 주임 교수 역할 미미, 사무실 미비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연계전공의 다양성 및 실용성 부족, 전공 인원의 제한 등도 지적되었음.
 - 새로운 연계전공 개설보다는 기존 연계전공의 내실화가 오히려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등 현행 우리 대학의 연계전공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 개선방안

1) 기존 연계전공 운영 개선

- 기존 연계전공 정비와 운영방식 개선
 - 2015년 1학기 이전 개설된 7개 연계전공 중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개설 강좌의 수강생 수가 적은 연계전공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함.
 - 존속하는 연계전공에 대해서도 더욱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주임교수의 책임운영, 커리큘럼 개선, 수업방식 개선 등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함.

2) 신규 연계전공 검토

○ 신규 연계전공 개설 검토 방향

- 우리 대학의 고유가치를 구현하고 학교의 위상과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욕구 충족과 취업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새로운 연계전공 개설을 검토하고, 국내 주요 대학의 현황을 참고하여 무역, 벤처·창업, 개발협력 등 3개의 새로운 연계전공 개설을 추진함.

가) 무역 연계전공

- 세계 10대 무역국인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대외무역의존 국가로서 2011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고 향후에도 무역 분야의 인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무역 연계전공을 통해 무역 분야의 이론 및 다양한 실무 교육을 통하여 기업과 관련 기관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무역 인재를 양성함.
- 우리 대학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어학과와 그 외 여러 많은 학과 학생들의 제1전공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데 매우 적합함.
- 개설 과목(예시): 국제무역론, 해외시장조사론, 국제마케팅, 지역통상론, 무역창업론, 국제물류관리론, 전자상거래와 인터넷무역, e비즈니스, 글로벌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무역영어, 무역실무, 무역프로젝트 등
- 수여학위: 경영학사 등

나) 벤처·창업 연계전공

- 우리 경제에서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벤처기업 및 강소기업과 같은 전문분야 중소기업의 설립, 개인 창업, 기업내 신규사업 개발 등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져 이 분야의 인재 수요가 확대됨.
- 우리 정부도 대학생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분야의 인재 육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많은 국내외 대학들도 관련 전공교육을 확대하고 있음.
- 이 연계전공을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의 포착과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벤처 창업과 경영, 신사업 창출, 신제품 개발 능력을 갖춘 전문가 및 기업내 신규 프로젝트 개발인력을 육성함.
- 개설 과목(예시): 창업론, 혁신과 기업가정신, 경영전략론, 시장조사론, 신제품개발론, 마케팅, e비즈니스론, 벤처캐피탈과 자금조달, 자본예산론, 창업프로젝트, 벤처경영인턴십 등
- 수여학위: 경영학사 등

다) 개발협력 연계전공

- 최근 국가간 소득 및 발전 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세계의 빈곤, 복지, 소득, 인권, 건강, 위생, 자연환경, 민족 등의 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개발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각 국과 국제기구가 개발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NGO와 기업들 및 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직접적인 참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 수준이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개발협력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실행 분야의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우리 대학도 외국어를 기반으로 적절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통하여 국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개발협력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시민(global citizen)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개설 과목(예시): 글로벌화와 국제개발, 국제개발정책론, 공적개발원조(ODA), 개발경제학, 국제교류협력론, 국제기구론, 시민참여와 NGO, 사회적기업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창출, 국제개발프로젝트관리, 개발협력인턴십 등
- 수여학위: 사회과학사 등

3) 무역 연계전공 신규 개설

- 1차적으로 1개 연계전공을 우선 개설함.
 - 상기 3개 연계전공 중 학생들의 선호도, 학교의 가용자원 규모 및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먼저 1개를 선택, 1차로 개설하고 다른 연계전공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으로 개설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학생들은 무역 연계전공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 2015년 6월 우리 대학 양 캠퍼스 1~4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무역, 벤처·창업, 개발협력 등 3개 연계전공에 대해 이 메일을 통해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발송 대상 18,835명 중 객관식 문항에 대한 응답자는 603명으로 응답률은 전체 발송대상자 기준 3.3%, 수신자 기준 14.4%임. 주관식은 132명 응답).
 - 조사 결과 '해당 연계전공이 개설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이 연계전공별로 무역 75.6%, 개발협력 69.9%, 벤처·창업 60.9%로 나타나 학생들은 3개 연계전공 중 무역 연계전공 개설의 당위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음.

- '해당 연계전공이 개설된다면 선택하겠다/개설되었다면 선택했을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무역 53.5%, 개발협력 47.8%, 벤처·창업 34.7%의 순으로 나타나 3개 연계전공 중 개설되었을 경우 학생들이 무역 연계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앞으로 연계전공을 선택할 학생들인 1학년만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무역 연계전공에 대해서만 다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도 1차 설문조사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무역 연계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선호도를 재차 확인함.
- 현행 정규학과/연계전공에서는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현재 무역 분야와 가장 관련이 깊은 우리 대학의 학과는 서울캠퍼스의 국제통상학과와 LT학부가 있음.
 - 국제통상학과는 현재 우리 대학 내 최다 원어강의를 개설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미시경제분석, 거시경제분석, 국제통상법, 국제계약법 등 경제학과 법학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시장분석, 국제정치경제론, 지역경제분석 등 다양한 강의와 전문가 특강을 통해 국제적인 마인드와 실무 감각을 겸비한 통상전문 인재양성을 추구하고 있음(학과 홈페이지 참조).
 - LT학부는 무역 당사국 간의 FTA 협상은 물론 다자간 교역 협정에 이르는 수많은 통상 분야의 협약, 위기와 기회를 창출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필요한 통상 전문가 배출을 위해 특화된 언어 능력은 물론 경제 통상 분야의 실무 역량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추구하고 있음(학부 홈페이지 참조).
 - 현행 국제통상학과와 LT학부는 주로 거시적 관점에서 통상 인력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어, 졸업 후 무역 전문가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산업 및 국가 차원에서 활약하기 위해 무역 분야의 이론을 교육하고, 특히 무역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 현재 타과생의 LT학부 이중전공은 역시 허용되고 있지 않으며, 국제통상학과도 정원에 따른 인원 제한으로 이중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 무역 연계전공 개설 제안
 - 학생들의 높은 선호도, 다양한 전공 학생들의 광범위한 수용 가능성, 현행 정규 전공과의 학문적 인접성, 담당교수 확보 등 행정적인 추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3개 연계전공 중 무역 연계전공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임.
 - 따라서 1차적으로 무역 연계전공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라. 추진방법과 일정

1) 추진방법

- 기존의 9개 연계전공에 대해서는 현재의 등록 학생들, 연계전공별 담당 교수들 및 학교의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연계전공별로 존속 및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존속 연계전공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
- 신규 개설 연계전공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설립과 운영을 담당할 학과 및 교수를 선정하고, 커리큘럼과 운영방식에 관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국제통상학과와 LT학부 및 학교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함.

2) 추진일정

- 2016년 1학기 개설을 목표로 2015년 2학기에 관련 학과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행정 절차를 완료함.

마. 기대효과

- 학생들에게 기존의 정규 학과 또는 연계전공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새로운 연계전공을 통하여 무역 부문의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 부문의 학생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
- 기존의 부실한 연계전공 운영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연계전공을 개설하여 우리 대학의 연계전공을 활성화할 수 있음.
- 외국어 전공학생들이 제1전공 이외에 무역 연계전공자로서 졸업 후 국내 및 세계 시장에서 무역 관련 기업이나 기관에의 취업을 확대할 수 있음.
- 졸업생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우리 대학의 이미지 제고와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교과목 이수체계

가. 취지

- 학과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졸업생의 전공 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교과목 이수체계를 정립함.
- 학생의 교과목 이수 현황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 대학 수강과목 관리 현황

- 졸업에 필요한 전공, 이중 전공 또는 부전공, 교양 영역 등의 최저 이수 학점이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 영역별 학점 배분 구조는 일반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외국어 전공 학과의 경우 외국어 영역과 지역학 영역의 수강 학점 수 배분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전공과목의 경우 영역과 학년 구분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용이한 과목들만 주로 수강하는 경우가 많음.
- 학과 정원이 소규모인 경우 전공 개설 과목수가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기 어려운 실정임.
- 전공에서 복수의 전공 트랙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트랙별로 차별화된, 보다 정교한 전공 학점 배분 구조가 요구됨.

2) 전공이수요건 사례: 한국외대 중국어대학 중국외교통상학부

- 중국어대학의 경우 전공이수요건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음.
- 일반전공/이중전공(14학번의 경우): 제1전공 54학점, 이중전공 54학점, 실용외국어 4학점, 교양 22학점
 - 필수교과 18학점: 기초중국어 1,2, 생활중국어 1,2, 중국학개론 1,2
 - 경제, 정치, 공통에서 7과목 필수 이수
 - 중국언어문화학부 개설 교류인정과목 또는 해외교류 전공인정 학점, 기타 전공인정 학점: 21-22 자유 수강
- 전공심화과정(14학번의 경우): 제1전공 75학점, 부전공 21학점, 실용외국어 4학점, 교양 22학점, 자선 22학점

- 필수교과 18학점: 기초중국어 1,2, 생활중국어 1,2, 중국학개론 1,2
- 경제, 정치에서 7과목 필수 이수
 - 경제심화: 경제영역에서 7과목 15학점
 - 정치심화: 정치영역에서 7과목 14학점
- 경제/경영/통상/정치외교/국제학부 지정과목: 6과목 18학점
 - 경제심화: 경제/경영/통상학과 지정과목
 - 정치심화: 정치외교/국제학부 지정과목
- 중국언어문화학부 개설 교류인정과목 또는 해외교류 전공인정 학점, 기타 전공인정 학점: 24-25 자유 수강
- 학생들의 졸업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졸업신청서를 작성함(그림 2 참조).

중국외교통상학부(지역학전공) 졸업신청서

인 적 사 항					
성명	홍길동	학번	201****	단락지, D10***** 이메일, ***@naver.com	
전공	중국지역학전공(심화 X)	이중전공 ¹ or 부전공 ²		국제학	
<small> * 생활중국어(1)(2), 중국학개론(1)(2), 현대중국의미래, 중국지역학개론, ... 중국학부, 중국어학전공, 중국문학전공 이수학점 제외하고 작성 * 중국지역학 심화전공자는 정치외교과(정치), 경제학, 경영학, 국제통상학과(이상 경제심화)에서 이수한 과목 포함 </small>					
중국지역학전공취득학점					
NO.	과목명	이수학점	NO.	과목명	이수학점
1.	현대중국정치이해	2.	9.	.	.
2.	중국산업지리와경제문화	2.	10.	.	.
3.	중국의정치문화	2.	11.	.	.
4.	중국통상협상사례연구	2.	12.	.	.
5.	중국경제사	2.	13.	.	.
6.	현대중국경제론	3.	14.	.	.
7.	중국경제주제론	2.	15.	.	.
8.	.	.	16.	.	.
총 취득학점					15 학점
졸업논문 (졸업시험)합격여부					
2014 년 2 학기 합격 (예) 2014 년 1 학기 합격					
FLEX 제출여부					
2013 년 12 월 제출 (예) 2013 년 6 월 제출					
<small> * 중국대대학에서는 FLEX, 졸업논문(시험) 여부만 확인합니다. 기타 졸업에 필요한 요건들은 본인의 이중전공 학과사무실과 학사총합지원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제미나(1)(2), 전보개발세미나, 전보성세미나는 학교 필수과목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중국지역학전공(이중전공) 학생으로, 졸업에 필요한 필수 학점을 위와 같이 이수하여, 201* 년도, 2 학기 졸업을 신청합니다. * 전부, 성적증명서 뒷면(부)상기 과목들을 성적증명서에 필수점으로 표시하여 제출할 것) </small>					
201* 년 월 일, 성명: 홍길동 (인)					

[그림 2] 우리 대학 중국외교통상학부 졸업신청서

다. 해외대학 사례

1) 미국 Maryland 대학 중국학과

- 최소 전공 학점 수는 39학점(졸업학점은 120학점)으로 이 중 언어 영역(18학점), 문학(3학점), 언어학(6학점), 역사/문명(6학점) 등 영역별 최저 이수학점이 지정되어 있음.
- 이수해야 하는 교양과목들은 영역별로 지정되어 있음(영어, 수학, 역사 및 사회과학, 자연과학, 논리학, 인문학 등).
- 학년별로 요구되는 전공이수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학년 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 학생별 교과목 이수 현황을 표를 활용하여 관리함([그림 3] 참조).

Chinese						
General Education Requirements				Benchmark Requirements		
Fundamental Studies				Year 1 - Benchmark Requirements		
Requirements: 15 credits/5 courses		Course	Credits	Grade	CHIN 101	
Academic Writing (AW)	ENGL 101				CHIN 102 and 103	
Professional Writing (PW)					Year 2 - Benchmark Requirements	
Oral Comm. (OC)					CHIN 203 and 204 or CHIN 205	
Math (MA)					Year 3 - Benchmark Requirements	
Analytic Reasoning (AR)					CHIN 301	
Distributive Studies				CHIN 302		
Requirements: 25 credits/8 courses		Course	Credits	Grade		
Natural Science Lab (NL)					Major Requirements	
Natural Sciences (NS)					Cumulative average of major requirements must be at least a 2.0	
History/Social Sciences (HS)					Requirements	
History/Social Sciences (HS)					Credits	Grade
Humanities (HU)					Language (18 credits)	
Humanities (HU)					CHIN 201* concurrent with	
Scholarship in Practice (SP)					CHIN 202*	
Scholarship in Practice (SP) non major					CHIN 203 concurrent with	
I-Series				CHIN 204		
Normally double counted with Distributive Studies				CHIN 207		
Requirements: 6 credits/2 courses		Course	Credits	Grade	CHIN 301	
I-Series (IS)					CHIN 302	
I-Series (IS)					CHIN 305	
Diversity				CHIN 306		
(overlap permitted with Distributive Studies and/or I-series)				CHIN 401		
Requirements: 4-6 credits/2 courses		Course	Credits	Grade	CHIN 402	
Understanding Plural Soc. (UP)					CHIN 418A	
Understanding Plural Soc. (UP) or					CHIN 418B	
Cultural Competency (CC)					CHIN 441	
					CHIN 442	
Experiential Learning- optional				Literature (3 credits)		
(overlap permitted with other requirements/courses)				CHIN 314, 315, 316, 418A, 418B,		
Requirements: 0-3 credits		Course	Credits	Grade	or 442	
					Linguistics (3 credits)	
					CHIN 421, 422, 423, 424, 428, or	
					EALL 300	
Students must earn a minimum of 120 credits to complete a degree.				History/Civilization (3 credits)		
University Requirements for Graduation:				EALL 300, HIST 284, 285, 480, or		
<input type="checkbox"/>	At least 30 credits must be earned at UMD			481		
<input type="checkbox"/>	15 of the final 30 credits must be earned at the 300-400 level			Electives (6 credits as approved by CHIN advisor)		
<input type="checkbox"/>	12 upper level major credits must be earned at UMD			DEPT 1xx-4xx		
ARHU Requirements for Graduation:				DEPT 1xx-4xx		
<input type="checkbox"/>	45 upper level credits			*pre-requisites CHIN 101, 102 and 103 or equivalent		
<input type="checkbox"/>	UNIV 101 or equivalent (if applicable)					
<input type="checkbox"/>	Global Engagement					

[그림 3] 미국 Maryland 대학의 중국어 전공 교과목 이수현황 점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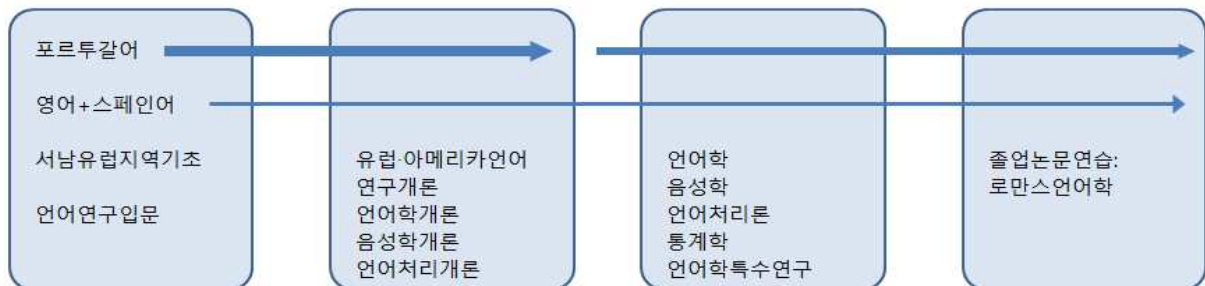
2) 동경외국어대학 (일본) 사례

- 학교개요: 동경외대는 두 개의 학부(언어문화학부와 국제사회학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학부는 외국어 전공별로 신입생을 선발함([그림 4] 참조).
- 학생은 각 학부 내 세 개의 전공과정 중 하나를 이수하게 되고, 동시에 특정 외국어를 전공하게 됨.
- 외국어 과정은 세계교양 프로그램의 일부로 이수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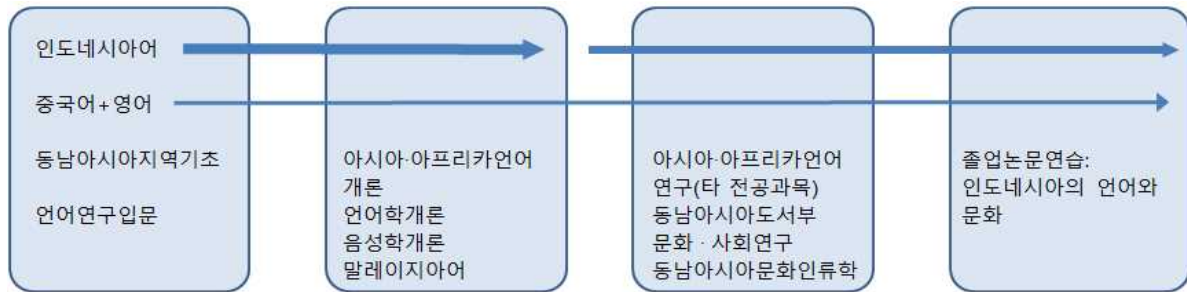
[그림 4] 동경외대 학부 구조

- 외국어, 전공, 교양 등의 영역에서 학년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들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음([그림 5, 6] 참조).
- 진급 요건에 규정된 과목들을 이수하지 못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음.
- 각 전공별로 학생이 지향하는 목표 인재상에 따라 교과목 이수 체계가 제시됨.
- 언어정보 코스의 교과목 이수 모델
 - 이수 모델 1: 서남 유럽 지역과 포르투갈어를 전공하고, 언어학과 정보학을 배우고, 미래에 정보, 어학 인재 양성 분야로 진출하고자 함.



[그림 5] 동경외대 언어정보코스 교과목 이수 모델 1

- 이수 모델 2: 동남아 지역과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하고, 동남아시아의 문화와 언어를 익혀 미래에 여행업계로 진출하고자 함.



[그림 6] 동경외대 언어정보코스 교과목 이수 모델 2

○ 언어정보 코스의 교과목 이수표([표 7] 참조)

- 모든 학생은 세계교양 프로그램을 공통으로 이수하고, 3학년부터 학부별로 3개의 전문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함.
- 세계교양 프로그램에서 외국어(또는 일본어)를 하나 이상 전공으로 선택하여 이수함.
- 학년별 진급 요건을 충족해야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음(진급요건 해당과목으로 분류).
- 각 학생은 자신의 전공 외국어에 해당하는 지역언어 A I, II를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선택에 따라 새로운 외국어 B를 이수하거나 외국어 A III을 이수하게 됨.
- 전문 프로그램은 전공 분야에 해당하는데, 우리 대학 체계로 본다면 외국어전공 학생의 경우 지역언어 A가 제1전공, 전문프로그램이 제2전공에 해당함.

[표 7] 동경외대 언어문화학부 교과목 이수표

구분	과목	진급 요건 해당 과목	표준이수학기	이수학기	전공 구분			
					A (일본 이외)	A(J1)	B (중앙 아시아)	
세계교양 프로그램	언어과목	지역언어 A I	O	1-1-1-2		10	10	10
		지역언어 A II	O	2-1-2-2		10	10	4
		지역언어 A III		3-1-4-2		8	-	-
		지역언어 B	O	2-1-2-2	1-1-2-2	-	-	6
		지역언어 B	O	3-1-3-2		-	-	6
		지역언어 A III			3-1-4-2	10	18	12
		지역언어 B			1-1-4-2			
		지역언어 C			1-1-4-2			
		교양외국어			1-1-4-2			
		GLIP 영어과목			1-1-4-2			
	지역과목	지역기초	O	지역별로 상이	1-1-2-2	6	6	6
	교양과목	학술교양	O	1-1	1-1-2-2	2	2	2
		기초연습	O	1-2	1-1-2-2	2	2	2
		세계교양과목	O		1-1-4-2	16	16	16
스포츠 신체문화			1-1	1-1-4-2	1	1	1	
전문 프로그램	도입과목	도입과목	O	1-2-2-1	1-1-4-2	4	4	4
	개론과목	개론과목		2-2-3-1	2-2-4-2	10	10	10
	선택과목	전공 고유과목			3-1-4-2	12	12	12
		학부 공통과목			3-1-4-2	6	6	6
		본 세미나		3-1-3-2	3-1-4-2	4	4	4
		졸업논문연습		4-1-4-2		4	4	4
		졸업논문 졸업연구		4-1-4-2		8	8	8
관련과목	관련과목			1-1-4-2	12	12	12	
졸업 학점					125	125	125	

라. 개선방안

- 학과별 졸업요건 재정립
 - 학과의 목표 인재상에 따라 전공(또는 트랙)별 졸업 요건으로 외국어와 지역학의 영역별 최저 이수 학점수를 지정함.
 - 외국어 영역에서 단계별 필수 과목들을 지정함.
 - 지역학 과목들을 문학, 역사/사회, 경제 등의 세부 영역별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의 이수 학점수를 지정함.
 - 다양한 지역학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과의 경우 타 학과와 연계하여 광역지역학 과목을 개설하거나, 전공과목 교류제도를 활용하여 타 학과 개설과목을 전공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저학년 과목 위주로 전공학점을 채우지 않도록 고학년 과목에서의 최저 학점수를 지정함.
 - 필요한 경우 인턴십과 연수 등 비교과활동에 대한 졸업요건을 규정함.
- 학년별 권장 교과목 이수 체계 제시
 - 각 영역의 이수 요건을 단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트랙별 교과목 이수 체계를 제시함.
- 교과목 이수 현황표 제시
 - 학생 본인이 스스로 교내 정보시스템을 통해 교과목 이수 현황을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프로그램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함.

마. 기대효과

- 학과별 목표 인재상에 따른 교과목 이수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목표의식을 고취하고 취업률 향상을 도모함.
- 전공 교과목들을 단계별로 이수하도록 유도하여 전공 어학 능력을 제고함.
- 전공 교육에 대한 대외적 신뢰성을 높이고, 외국어 교육에 대한 외부 지원을 모색함.
- 교과목 이수 현황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졸업 시점에서의 졸업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4. 단계별 수준별 어학교육

가. 취지

- 어학역량 교육목표에 따른 단계별 교육과정 표준화
 - 역량 달성을 위한 단계별 수준별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함.
 - 선수 학습의 중요성 및 연계성을 고려한 교육체제를 도입함.
- 교육의 적합성과 수월성 추구
 - 학생의 수준(학습 능력 및 단계)에 적절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함.

나. 현황과 과제

1) 현황

- 우리 대학이 외국어 특성화대학이라고 하지만 교육하는 언어의 수가 많다는 것과 다른 대학에 비해 외국어 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교육체제와 방법 및 수준에서는 특성화를 주장하기 힘든 상황임.
-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표준화 미비로 인해 학과별, 교수별로 강의 내용과 수준차이가 크고, 단계별 교수-학습 목표 및 내용에 대한 기준 제시가 미흡함.
- 선수과목지정제¹⁾의 미비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특정 단계의 강의를 자의적으로 수강하는 일이 발생함.

2) 과제 및 효과적 실행 조건

- 표준화된 단계별 외국어 교육 체계 도입
 - 외국어 교육과정을 학년별로 초급/중급/고급 단계로 구분하고, 영역을 말하기/쓰기/문법 등으로 나누어 각 단계/영역별로 성취해야 할 교육 내용을 표준화해야 함.
- 선수과목지정제 도입
 - 학년별로 요구되는 전공이수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학년과목을 수강할 수 없게 하는 (유급)방식이 아니라 특정 과목에 한정하여 선수 요건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함.
 -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존 입학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예상되는 학생(단체)의 반대를 극복하고, 적절한 학사안내 및 수강지도를 통하여 선수과목지

1) 전공외국어 학습에 대한 이해도를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초 과목의 선이수를 요구하는 제도.

- 서울대학교 교양 외국어 '역수강금지제도': 고급 → 중급, 중급 → 초급 순서의 수강 금지(18개 외국어 및 산스크리트어, 한문 교과목에 대해 적용)

- 정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함.
- 다양한 교재 및 학습자료 개발
 - 상업용 교재, 인터넷 자료,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수준별 교재 및 학습자료의 개발·확충으로 교수의 창의적 교재 및 학습자료 선택·활용이 가능해야 함.
 - 교재 및 학습자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교육(SMART Learning), 온·오프라인 블렌디드러닝(On-off Line Blended Learning), 플립트러닝(Flipped Learning) 등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도입이 필요함.
 -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
 - 동일 단계에서 몇 개 수준으로 분반 수업을 할 경우 전체 강의시수 증가와 강의실 부족 문제 등 현실적 제약 요건이 있으므로 동일 강좌 내 수준별 소집단 지도(개별 지도 포함)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함. 단, 다수 분반 수업이 이루어지는 영어, 중국어 등의 경우는 수준별 분반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고, 튜터링 등 지원이 필요함.
 - 타당성, 신뢰성을 갖춘 적절한 평가방법 정립
 -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어학능력평가 도구를 필히 마련해야 함.
 - 진정한 의미의 수준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수준별 분리 평가 방안 연구가 있어야 함. 수준별 평가의 부재는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지 못하는 원인이 되므로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을 갖춘 구체적이고 다양한 기준에 바탕을 둔 어학능력 수준별 평가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수준별 평가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 외국어를 사용한 의사소통능력 및 언어적 요소에 관한 지식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평가가 되어야 함.
 - 적정 인원의 교수진 확보 및 인프라 확충
 - 학생들의 개별 학습기회 확대와 개인차 반영 등 긍정적인 취지를 살린 단계별 수준별 어학 교육이 가능하고 학과(전공)별로 교수의 강의 및 기타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정한 인원의 교수를 확보해야 함.
 - 다양한 규모의 강의실, 외국어 학과 전용 강의실, 각종 풍부한 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강의실 확보를 위한 학교 당국의 노력 필요함.
 - 즉 새로운 어학 교육 체제 도입에 필요한 교수확보, 적절한 교수법 및 교재 개발, 제도 및 인프라에 대한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함.

- 외국어 학과 교수 협의체 운영
 - 지속적인 단계별 수준별 교수-학습 방법 연구, 강의자료 제작, 평가 도구 개발 등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외국어학과 교수 협의체 운영으로 수준별 어학 교육 체제를 효과적으로 도입해야 함.

다. 개선방안

1) 추진내용

- 단계별 교수-학습 목표 및 내용의 문서화(Documentation)
 - 어학 교육의 단계별 교수-학습 목표 및 내용에 대한 학과(전공)별 문서화 및 공개: 단계별 수준별 교육체제 도입의 시작은 각 단계별 학습 성취 기준(HUFS Standards) 설정 및 공유이므로 기존의 각 과목별로 산재된 교수-학습 목표 및 내용을 전공언어(학과)별로 문서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교수-학생 등 모든 교육 참여자가 학습목표를 충분히 인식하도록 함.
 - 표준화를 위한 시범 추진 및 확대²⁾: 위와 같은 문서화 작업은 전체 외국어 학과 또는 단과대학 차원에서 초안을 작성하거나 혹은 특정 학과를 지정하여 시범 추진한 후 전체 외국어 학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함. 즉, 일부 또는 특정 외국어의 단계별 교육 목표 및 내용을 문서화하여 우리 대학에서 교육하는 모든 외국어의 단계별 교육 목표 및 내용의 문서화 표준으로 활용하고 필요시 연구개발과제 지정함.
- 선수과목지정제 도입
 - 외국어 계열 5개 단과대학이 공동으로 선수과목지정제를 도입하되 학과별 선택적인 시행을 보장함.
 - 선수과목지정제 관련 사항을 교무처처무시행세칙 및 수강편람에 명시하고, 학과별로 선수과목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함.
 - 교무처처무시행세칙 제29조(수강의 원칙 및 범위)에 ‘학과가 필요한 경우에 선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완하고, 자세한 사항은 매학기 수강편람에 규정함.
 - 선이수과목 동시 수강 허용
 - 1학년 1학기 과목과 2학년 1학기 과목을 동시에 수강함.
 - 읽기/쓰기 또는 말하기/듣기의 영역 별로 적용
 - 학기 단위로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불가하므로 학년 단위로 시행

2)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Language Center, Objectives and Curricular Document, Description of Target Student Abilities: First-Year Spanish: Spanish Language Objectives 등을 참고할 것.

- 연수와 입대, 휴학 등으로 학기가 어긋나는 경우 당해 학기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고 1개 학기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1학년 1학기 선수과목 미이수 경우에도 1학년 2학기 과목 수강이 가능하도록 함.
- 제도 도입 이후 신입생부터 적용
- 장기적으로 대학과목 선이수제도(Advanced Placement Program)³⁾, 이수면제제도를⁴⁾ 확대 시행함.
- 효과적인 평가 도구 개발
 - 영어/제2외국어/특수외국어로 대별하고, 각 그룹 내에서 학과(외국어)별로 설정한 각 단계 및 수준별 학습 성취 기준에 따라 평가 기준과 방법 개발
 - 학과(외국어)별로 설정한 각 단계 및 수준별 학습 성취기준 역량(Target Student Abilities)을 효과적으로 평가·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
 - 현재 시행 중인 FLEX 등을 기본적인 평가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학과(외국어)별로 소속 교수 전원이 공동으로 평가 도구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학과(외국어)별 연구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 고려
- 교재 및 학습자료 개발
 - 단계별 어학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재 및 학습자료 개발
 - 기본 교재 내용을 학생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한 자료를 사용하거나 기타 단계별 수준별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의 창의적 제작 및 활용
 - 수준별 교재 및 교육 자료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교육(SMART Learning), 온·오프라인 블렌디드러닝(On-off Line Blended Learning), 플립트러닝(Flipped Learning) 등 새로운 교육 방식에 적합한 교재 개발 지원
 -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준별 학습자료 제공 시스템 구축 예) 도서관, 교수학습개발원
- 교수-학습 방법 개발 및 지원 환경 개선
 - 기존의 강의모형 중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또는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위한 강의모형을 선택하여 어학 교육에 적용하거나 어학 교육에 적합한 신규 교수-학습 모형 개발
 - 학생들의 적극적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 작용 속에서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할 수

3) 학습능력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대학수준의 과정을 학습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대학 진학 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미국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인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College Board)'가 담당하고 있으며, AP과목 이수는 대학입학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함.

4) 해당 전공 외국어 능력에 대한 진단평가 결과 또는 외부 공인시험 성적에 따라 이수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 과목의 학점 및 성적을 인정하고 성적은 총평점 평균에 가산하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 대학은 일부 실용외국어 과목에 대해 이수면제 학점을 인정하고 있음.

있도록 다양한 활동 및 과제 중심의 학습 지도

-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 모색
- 전공별 스터디 그룹 활성화와 튜터링 문화 정착으로 수준별 학습 목표 달성

2) 추진일정

- 시범학과들을 통해 2017년부터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감.

라. 기대효과

- 단계별 표준적 교육 내용 및 방법의 제시로 교육 효과 제고
- 체계적 교육과정과 타당성을 갖춘 평가방법 정립
- 교수-학습 방법 개발 및 지원 환경 개선

5. 현장연계교육

가. 취지

- 졸업생의 실무 능력 강화
- 정부의 재원과 산학협력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선 도모

나. 현황과 과제

1) 현황

- 기존 국내 취업 연계형 계약학과 개설 사례는 대부분 IT 관련 학과이므로 외국어전공자를 위한 계약학과 개설을 기대하기 곤란함.⁵⁾
- 외국어 전공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 분석과 그에 따른 교과과정 개편이 미흡함.
- 외국어 전공자를 위한 현장실습, 인턴십, 캡스톤 설계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함.
-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과과정 연계 학점인정 비교과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함.

2) 과제

- 취업 연계형 계약학과 개설 방안 모색
 - 국가 전략지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해 정부 및 기업체 취업 연계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일종의 계약학과로 개설 운영
-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현장밀착형 교과과정 개편
 - 사회적 변화와 수요에 부합하는 교과목과 교육내용으로 개편하는 외국어학과에 대한 지원 방안 및 재원 마련
- 외국어 전공자를 위한 현장연계 교육 프로그램 확충
 - 어학과 실무 능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해외 인턴십, 교육·봉사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지원 확대
 - 외국어 전공자가 전공 지역(국가)의 사회문제 또는 주제를 선정하여 아이디어 도출에서 해결방안 수립까지 진행하는 캡스톤 디자인 또는 외국어전공자와 공학계열전공자가 아이디어 도출과 문제 해결을 함께 해 나가는 융합 캡스톤 디자인 사례 발굴 지원
-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학점인정 비교과프로그램 확충

5) 대기업 계약학과 개설 사례(재학생 장학금 지급, 졸업 후 취업 보장)

- 성균관대 반도체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글로벌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학과(2015년 신설): 삼성전자
- 경북대 모바일공학과: 삼성전자
- 한양대 소프트웨어공학과, 융합전자공학과: 삼성, LG, SK 등과 연계

-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확충 및 학점인정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다. 개선방안

1) 추진내용

- 국가전략지역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 세계 경제흐름 변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전략 수립. 국가전략지역전문가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기관 및 기업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주요 인재의 해외 진출을 돕는 방식으로 일종의 계약학과 개설
 - (예시) HUFS 아너스 프로그램의 정부지원 프로그램화
- 현장밀착형 교과과정 개편
 - 학과(전공)별로 해당지역 국가 및 국내 관련 기업·기관에서 요구되는 실무역량에 대한 교육 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재학생 정규교육과정 및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
 - HUFS 글로벌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해외 자매대학 및 국내외 기업인, 동문 등 네트워크 활용한 정보 수집
 -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교과과정 및 교재 개발 선도학과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방안 마련
- 현장연계 교육과정 확대 운영
 - 현장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현장연계 전공교과목, 교양강좌 개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인턴십 지원 확대
 - 현장실무역량 중심의 교과목에 관련 기관·기업 인사들의 강의 참여 확대
 - (예시) 특강, 멘토링, 자문,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

2) 추진일정

가) 국가전략지역전문가양성과정 운영

- 1차년도(2016학년도): 세부 운영 방안 마련
 - 세계시장 개척에 필수적인 국가 전략지역 지식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개발
 - 전략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학 기반 융복합 교과과정 및 교과목 개발
 - 정부재정지원 유치 노력 및 참여 학생 선발
- 2-4차년도: 프로그램 안정화 및 양성 규모 확대
 - 우수 사례(학과) 발굴 및 모델 확산
 - 해외 현지실무과정 지원시스템 선진화

- 정부재정지원 확보로 양성 규모 확대

나) 현장밀착형 교과과정 개편

- 1차년도(2016학년도): 선도 학과 발굴 및 지원
 - 현장밀착형 교과과정 및 교재 개발에 대한 지원책 마련 및 선도학과 지정
 - 해외 자매대학 및 국내외 기업인, 동문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장밀착형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해당 학과에 전달하는 조직(체계) 마련
 - 글로벌 에이전트 설립 운영
- 2-4차년도: 우수 사례 모델화
 - 선도 학과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모델화하여 타 학과로 확산
 - 해외 현지 수요 파악 기능 및 전달 체계의 강화

다) 현장연계교육 운영 개선

- 1차년도(2016학년도): 표준화 교육과정 개발 등
 - 현장연계 전공교과목의 표준화 모델 개발 지원
 - 현장연계 교양강좌개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전략지역 연수 및 인턴십 개발 지원 및 학점인정제도 개선
 - 현장실무역량 중심의 교과목 개발 지원
- 2-4차년도: 표준화 교육과정 적용 및 운영 개선
 - 개발된 표준화 현장연계 전공교과목의 각 학과별 적용 지원
 - 현장연계 교양강좌 및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개선
 - 재원확보를 통한 전략지역 연수 및 인턴십 지원 규모 확대
 - 학점인정 현장실습 및 인턴십 확대
 - 현장실무역량 중심의 교과목에 관련 기관·기업 인사들의 강의 참여 확대

라. 기대효과

- 외국어 전공자의 현장연계 실무역량 강화
- 졸업생의 취업률 및 교육만족도 향상

6. 전략지역전문가 HUFS 아너스 프로그램

가. 취지

- 정부재원과 산학협력을 활용한 전략지역전문가 양성
- 해외현지 학습 및 실무 체험 기회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제공

나. 현황과 과제

1) 현황

- 전략지역 언어 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지원 미흡
 - 우리 대학의 강점인 전략지역 언어 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 및 육성 필요
- 학과(전공 외국어)중심 교육과정 보완 필요
 - 언어·문화 기반 융합적 학문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 필요
 - 복잡한 문제 해결력과 세계시민적 소양을 갖춘 지역전문가 양성 필요
- 우수학생 집중 관리·육성 체계 미흡
 - 우수학생 선발·교육에 필요한 장학금, 교육과정 제시 등 필요

2) 과제

- 국가 전략지역 전문가 육성을 위한 자원 및 협력 체계 마련
 - 전략지역 언어·문화에 대한 전문성과 융합적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재정 사업화 추진
 - 학교당국과 참여 학과 및 교수진의 긴밀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 HUFS 아너스 프로그램 개발·운영
 - 전공을 넘어서는 융복합 커리큘럼 개발
 - 학과중심, 전공외국어 위주, 단편적 인재육성의 한계 극복
 - 전공/교양/비교과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 추진방안

1) 추진내용

가) 교육 체계 및 과정

- 기존의 4년 과정에 추가하여 1년간의 해외현지 학습 및 실무 체험을 필수로 함.
 - 2학년 2학기에 학생 선발, 3학년 1학기에 파견준비(현장연계교과과정), 3학년 2학

기 현지 파견

- 해외 교육과정 구성: 현지 언어연수 6개월 + 실무 인턴십 6개월

나) 참여대상 학과 및 학생

- 전략 언어 교육 관련 학과(아랍어 등 27개 언어, 입학정원 870명 학생) 중 HUFs 아너스 프로그램 참여 학과 학부생 모두에게 기회 제공, 현실적으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⁶⁾
- HUFs 아너스 선발 인원은 일단 참여 학과 입학정원의 10% 정도로 제한하고, 정부재정지원 규모에 따라 확대 고려

[표 8] 전략지역전문가 HUFs 아너스 프로그램 대상 언어(전공) 및 선발규모(예시)

구분	지역 및 국가	전략언어(전공)	세부심화 전공트랙	선발 인원
중동·아프리카	아랍	아랍어	언어문화 정치외교 경제통상	90
	터키	터키어, 아제르바이잔어		
	이란	이란어		
	아프리카	하우사어, 스와힐리어, 줄루어		
유라시아	중앙아시아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키르기스어		40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어		
	몽골	몽골어		
유럽·중남미	폴란드	폴란드어		90
	루마니아	루마니아어		
	헝가리	헝가리어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세르비아·크로아티아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그리스·불가리아	그리스어, 불가리아어		
인도·아세안	브라질	브라질어	80	
	베트남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인도	힌디어, 우르두어		
	태국	태국어		300

다) 교육지원

- 전략지역 교육지원센터(HUFs 글로벌 에이전트) 설립
 - 아너스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지원
 - 전략지역 언어·문화 정보 아카이브 구축 및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 전략지역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지원
- 교수 요원 충원
 - 학과정원 부족으로 교수 충원이 곤란한 언어 교수 요원 충원: 아제르바이잔어, 하

6) 연계전공/자기주도전공 등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수시입학이 확정된 입학예정자에게도 홍보하며 입학성적을 대상자 선발기준으로 고려함.

우사어, 줄루어, 우즈베크어, 키르기스어, 우르두어, 슬로바키아어, 크로아티아어, 그리스어 등

- 국가적으로 필요하나 학과정원이 없는 언어: 캄보디아어, 라오스어, 히브리어, 에스토니아어, 타갈로그어 등
- 교수 요원 충원은 아너스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정부 재정 지원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2) 추진일정

- 준비시기
 - 2016-1학기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관련 제도 및 규정 정비, 홍보)
 - 2016-2학기 참여학과 선정
 - 2017학년도 사업 시작 목표
 - 학과(전공)별 특성에 따라 지역학 기반 융복합 교과과정 및 교과목 개발
- 1차년도(2017학년도)
 - 우수학생 선발 HUFSS 아너스 프로그램 운영
 - 학교자체예산으로 50명 규모 추진
 - 교육부 지원 사업 확정 시 규모 확대
 - HUFSS 글로벌 에이전트 운영 연계
 - 아너스 프로그램 참여 학생 지원 및 관리
 - 전략지역 언어 교육 관련 국내외 대학 간 공조 협력 체계 구축
- 2-4차년도
 - 프로그램 이수자 후속 관리 체제 구축
 -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분석
 -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안정화 및 참여학과/학생수 확대

라. 기대효과

- 대학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배출 및 졸업생 진로 확대
- 전략지역 현지학습 연계 교육과정 구축으로 외국어 전공자 역량 강화
- 정부기관, 기업체의 전략지역 진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

7. 입시연계 5년 학·석사과정⁷⁾

가. 취지

- 엘리트 지역전문가 육성 배출
- 전문외교관 및 지역통상전문가 시대 대비

나. 추진방안

1) 학생 모집 및 관리

- 입학생 모집(안)
 - 적용시기: 2017학년도부터
 - 참여학과: 지역학 관련 학과
 - 대상학생: 수시전형 중 “학생부교과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표 9] 참조)
 - 이 학생들이 이중전공 트랙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예시) 제1전공 인도어, 제2전공 경제·경영·국제통상 또는 정치
 - 특전: 국제지역대학원 연계 5년학·석사 GESP 이수 시 혜택 부여
 - 학사과정 1학기 해외언어연수 기회 제공
 - 석사과정 전학기(3개 학기) 전액장학금 지급(평점평균 4.0이상 유지 조건)
 - 석사과정 중 1학기 해외대학 파견 또는 실무 인턴십 기회 제공
- 학생관리 방안
 - 학·석사운영위원회 구성(학부 및 대학원 교수)
 - 유관 기관 및 기업 자문단 구성
 - 학부 입학 시 5년 학·석사과정 오리엔테이션 진행
 - 3학년 1학기 방학 중 국제지역대학원에서 2주간 Pre-school 진행

[표 9] 참여희망학과 모집예정인원 현황표

대학	학과·전공	2016학년도입학정원	2017학년도 모집예정인원
동양어대학	인도어과	30	7
중국어대학	중국어외교통상학부	52	7
일본어대학	융합일본지역학부	35	7
합 계			21

주 1) 2017학년도 모집을 위해 국제지역대학원과 입학처 간 인원/절차 관련 최종 협의 진행 중.

7) 국제지역대학원 연계 5년 학·석사 지역전문가 양성과정, 가칭 Global Experts Scholarship Program(GESP), 학부 입학 시 5년 지역학 과정 이수 입학생으로 수시전형 특별모집하고, 지역전문가 트랙으로 5년간 체계적으로 교육함.

2) 교과과정

가) 학부기간(7개 학기)

- 지역전문가 기반 과정(6학기 이중전공 + 1학기 해외언어연수)
 - 선발된 학생은 이중전공 트랙을 선택함.
 - 해당 학생은 전공(외국어 및 지역학)과 정치, 경제·경영·통상 영역 중 본인이 원하는 이중전공을 선택하여 지역전문가 기반 과정으로 이수
- 언어심화 및 지역이해 과정
 - 학부 마지막 학기(3학년 1학기) 해당지역 언어연수 기회 제공
- 제한사항
 - 3학년 1학기까지 성적평점이 3.5 이하일 경우 학·석사연계과정 이수 불허
 - 탈락학생 1학기 재수강 또는 해당학과 4학년 학부과정으로 이동(학사취득)

나) 학·석사 동시기간(1년: 3학년 2학기-4학년 1학기)

- 지역전문가 집중과정
 - 학·석사 연계전공트랙으로 진입한 학생은 이때부터 학부와 대학원 강의를 동시에 수강할 수 있음.
 - 이 기간 동안 학생은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인정하는 전공영역 9학점과 분과영역 9학점, 총 18학점을 이수함(평점 3.5이상만 인정함).
 - 이수 학점은 학부의 전공 및 이중전공 학점과 대학원 이수 학점으로 동시에 인정 받음.
 - 만약 해당 학생이 학·석사동시기간 1년 동안 총 18학점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국제지역대학 진입 후, 부족 학점을 채워야 함.
 - 전공 54학점 중 9학점과 이중전공 42학점 중 9학점을 각각 국제지역대학원 전공 영역 학점과 분과과목(정치, 경제)학점으로 인정함.
 - (예시) 전공: 인도어 9학점, 이중전공: 경제학 9학점
 - 위 학생이 국제지역대학원 진입 시 대학원 필수이수학점 중, 전공 9학점과 분과과목 9학점 이수 면제. 단, 이수학점 중 3.5이하인 경우의 교과목(전공 및 분과과목 동일)은 불인정

다) 대학원 기간(1.5년: 총 3개 학기)

○ 지역전문가 심화과정

- 국제지역대학원에 진입한 학생은 총 3개 학기를 수강함(2학기 지역학 심화 + 1학기 해외대학파견 또는 인턴십)
- 매주 1회 정기특강 진행(매주 1회 국내외 저명인사 초청 특강)
- 마지막 학기 해당지역 연구논문 작성

라) 지원혜택

- 1개 학기 해외대학 파견 또는 실무인턴 기회 제공: 대학원 진입 2학기 때, 해외대학 1학기 파견 또는 국제기구, KIEP와 같은 전문연구기관, KOTRA, 외교부, 관련 기업 등에서 1학기 인턴십
- 3학기 전액장학금 혜택(연구소 조교, 학과 연구조교 등), 단 성적 4.0이상
 - 유관기관 및 해당기업 전문가와 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

3) 선결사항

- 장학금 재원의 확보
 - 학교 예산 투입 또는 외부 자원 확보 필요
 - 국제지역대학원 내부 자원 일부 재분배 방안 검토
- 학칙 및 학·석사연계과정 관련 규정 정비

다. 기대효과

- 우수입학자원 확보 및 해당학과 진학률 증가 효과
- 지역전문가 양성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

Ⅲ. 교육·연구지원 강화

1. GPS 3.0⁸⁾

가. 취지

- 효율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통합적 상담 지도 시스템 운영
 - 우리 대학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의 질 제고를 위한 학생지도 체제 마련
 - 역량, 적성, 학습, 진로, 취·창업, 상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입학부터 졸업(취업)까지 관리하는 일련의 교수/학습/매체 지원으로 학생들의 경력관리 내비게이션 역할 수행

나. 현황과 과제

- 교육목표 부합 통합적 학생지도체제 미흡
 - 우리 대학의 인재상, 교육목표, 특성화 방향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학생지도체제 구축 필요
 - 인재상의 핵심역량인 창의·소통·글로벌·실용역량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특화된 학생지도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학생 개별 맞춤형 이력·경력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
 - 입학에서부터 졸업, 졸업 후 평생학습까지 개별 학생의 이력과 경력을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지속적인 학생정보 업데이트 및 참여 학생들에 대한 사후 통계분석 및 개선안 도출을 위해 DB관리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 개발 필요

8) 'GPS 3.0'이란?

1. 통합적 학생 역량 관리 시스템

- 기존의 학생경력개발 시스템인 Global Pathfinder System(GPS)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입학후 '적성, 진로, 상담, 학습, 역량, 인턴십, 취·창업'의 6개 영역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학생지도 체제를 'GPS 3.0'으로 명명
- 개방·소통·공유·협력을 통한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체계적 학생지도 관리 방법

2. 학습-생활-진로(취업) 연계 학생지도 체제

- 학생 생애주기에서 본인의 현 상황을 자각하고, 필요한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을 Plan-Do-Check 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학생지도 체제

- 개별 학생 맞춤형 상담 및 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조직(부서) 확대 개편 필요

다. 개선방안

1) 추진내용

- GPS 3.0 구축
 - 학생의 역량, 적성, 학습, 진로, 취·창업, 상담 등을 통합 관리하는 GPS 3.0 시스템 구축
 - 학생 경력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 활동 영역별 표준항목 개발 및 DB 구축
 - 학생지도 자료와 노하우 축적 및 정보공유체계 마련
 -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학습·생활·진로를 밀착 지도하는 전문상담원(Academic Counselor)제도 운영
- 학습지도 내실화
 - 수요자 공감·친화형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교육 환경, 학습자 특성, 프로그램 결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학생의 학습지도 요구 충족
 - Catch-up 프로그램⁹⁾, 길라잡이 프로그램¹⁰⁾, 학습성장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장애학생, 외국인 유학생, 새터민, 다문화학생 등 학습소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¹¹⁾
- 생활지도 내실화
 - 인성·공동체성 함양 프로그램을 생활지도 내실화와 연계하여 운영
 - 인성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수행평가 분석, 프로그램 보완
 - 밀착 생활지도를 위한 학교-가정 연계, 학부모 대상 학생 상담 및 지도 프로그램 정보 제공
 - 다양한 성장프로그램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및 대학생활 만족도 향상
 - 또래상담원, 학생상담센터 등을 통한 폭넓은 상담기회 제공
- 진로지도 내실화
 - 교수 밀착지도를 통한 진로 및 직업의 구체화 기회 제공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직업선택 지도 수행
 - GPS 3.0을 통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각 단계별 최적화된 프로그램 제공

9) 학습부진학생 및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도

10) 신입생 대상으로 각 학과의 전공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전공 적성을 파악하여 진로 설계 및 탐색 기회 제공

11) 장애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 학습소수자의 안정적 대학생활 정착과 개인별 학업에 대한 학사지도 강화, 학습소수자를 위한 전문상담시스템 구축, 외국인 유학생의 지속적 증가를 고려하여, 학사안내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교적응 프로그램 및 전문상담시스템 체제 구축

- 맞춤형 진로지도를 위한 직업경로 모형 개발
 - 학과(전공)별 진출가능 분야, 직무내용, 전공과목 이수, 관련자격 등 고려
- 비교과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현장중심 실무형 진로지도 내실화
 - 글로벌 실무능력 및 현장 실무형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및 이수 인증제 운영
- 진로 유형별 멘토링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
 - 자기진단-직업이해-진로설계-멘토매칭-전공교수로 연계되는 취업집중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진로지도 시행

2) 추진일정(안)

가) GPS 3.0 구축

- 1차년도(2016학년도)
 - 기존 학생 경력관리시스템을 확장하여 역량, 적성, 학습, 진로, 취·창업, 상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 학생 활동 영역별 표준항목을 개발하고 항목별 정보를 체계화(DB 구축)하여 교수-학습 및 학생 경력관리에 활용
 - 학생지도와 연관된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 마련
- 2-4차년도
 - 창의·글로벌·실무 역량에 초점을 맞춘 학생 유형별 지도를 위한 학생지도 자료와 노하우 축적 및 활용
 - 전체 대학 차원의 교육-상담-진로지도 효과성 증대를 위해 축적된 노하우 공유 및 확산
 - 시스템 상시 점검, 평가 및 보완을 통해 지속적 개선 및 상용화

나) 학습지도 내실화

- 1차년도(2016학년도)
 - 학생 공감·친화형 학습지도 프로그램 개발
 - Catch-up 프로그램¹²⁾, 길라잡이 프로그램¹³⁾, 학습성장 맞춤형 프로그램 등 도입 및 운영 개선
 - 장애학생, 외국인 유학생, 새터민, 다문화학생 등 학습소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지도의 사각지대 최소화¹⁴⁾

12) 학습부진학생 및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도

13) 신입생 대상으로 각 학과의 전공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전공 적성을 파악하여 진로 설계 및 탐색 기회 제공

○ 2-4차년도

- 학생 공감·친화형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 결과 분석 및 지원 확대
- 전문상담원(Academic Counselor) 상담 매뉴얼 및 프로그램 보완
- 외국인 유학생, 장애학생 등 전문상담 범위 특화를 위한 인력 및 조직 확대

다) 생활지도 내실화

○ 1차년도(2016학년도)

- 인성 함양과 생활지도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예) 세계시민성·공동체성 함양 기숙사프로그램 개발
- 학부모 대상 학생 상담 및 지도 프로그램 정보 제공
- 자기이해성장 프로그램, 대인관계성장프로그램 등 다양한 유형의 전문심리 프로그램, 또래상담원제도, 학생상담센터 운영 상황 점검(개선점 도출)

○ 2-4차년도

- 인성 함양과 생활지도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규모 확대
- 인성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수행평가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보완
- 학부모 대상 학생 상담 및 지도 프로그램 정보 제공 관련 종합적 성과 분석
- 생활지도 내실화 관련 전문심리 프로그램 제공 확대
- 상담인력풀과 또래상담원 규모 확대 및 전문성 강화 교육 지원

라) 진로지도 내실화

○ 1차년도(2016학년도)

- GPS 3.0 기반 진로·직업선택지도 시행
- GPS 3.0과 다양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유기적 운영 방안 연구
- 사회적 요구에 대한 학과별 수요조사와 직업경로 모형 개발
- 진로지도 연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운영
- 학생 진로 유형별 멘토링 내실화 방안 수립
- 심층적 진로·취업 집중 프로그램 개발

○ 2-4차년도

- GPS 3.0 기반 각 학년·단계별 최적화된 진로지도 프로그램 제공
- 전공별 진로 모형을 활용한 맞춤형 진로지도 실시
- 현장실습, 인턴십 규모 확대를 통한 진로지도 강화

14) 장애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 학습소수자의 안정적 대학생생활 안착과 개인별 학업에 대한 학사지도 강화, 학습소수자를 위한 전문상담시스템 구축, 외국인 유학생의 지속적 증가를 고려하여, 학사안내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교적응 프로그램 및 전문상담시스템 체제 구축

- 학생 진로 유형별 멘토링 활성화
- 학생친화·맞춤형 진로지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

라. 기대효과

- 다변화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배출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상승
- 대학차원의 선순환적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내적 가치의 향상을 통한 대학발전 도모
- 학생중심의 맞춤형 상담·지도를 통한 학생 역량 강화 및 애교심 고취
- 체계적 학생정보관리를 통한 학생 교육 몰입도 향상 및 이탈률 감소

2. CTL 3.0¹⁵⁾

가. 취지

- 교수의 생애주기별 연수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역량 혁신
 - 교수 임용 단계부터 주기별 맞춤형 연수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 역량 진단 및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수-개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역량 개발 체제 마련
- 수요자 공감형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의 구현
 - 관행적 지원 서비스가 아닌 교수 및 학생의 마음을 읽고 반응하는 공감형 서비스를 통해 교수-학습서비스의 선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수-학습 지원 체제 구축
- 교육지원체제 전체를 포괄하는 학습자 맞춤형 통합학습정보지원시스템 구축
 - 학습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학습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습역량 및 실무역량 개발을 촉진하는 맞춤형 학습정보지원시스템 구축
- 외국어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미래형 학습 환경 구축
 - 미래형 교수법 개발 지원 및 스마트 교육 인프라·콘텐츠 확충

나. 현황과 과제

- 교수-학습 지원 조직 설치 운영
 - 2003년 5월 교수학습개발원 설치
 - 교수학습개발원과 정보지원처 산하의 IT개발팀, IT인프라팀, 디지털서비스팀이 각 분야별로 교수-학습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교수법 향상 워크숍과 특강실시/ 워크숍 운영 강좌 수 및 참석 인원 지속적 증가
 - 수업촬영 및 강의 클리닉, Teaching Tip 등 교수법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한 교수 역량 강화
-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5) CTL(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3.0은 교수 연수 체제 혁신, 공감기반 교수-학습 지원 체제 구축, HUFSh형 스마트교육 체제의 구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의 혁신적 업그레이드 단계를 의미함.

- ‘함께하는 공부, 커져가는 보람’ 캠페인을 통해 튜터링 참가팀 및 총인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를 통한 학습 능력 및 관계형성 능력의 향상
- 교수-학습 인프라 구축
 - English Zone에서 운영하는 영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어학학습 및 외국인교원 교류확대
 - 강좌 당 학생 수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 개선 및 교육효과를 극대화
 - 위성방송, 멀티미디어자료 및 e-Learning지원 활성화를 통한 강의유형 다양화 및 만족도 향상
 - e-Class 이용 강좌 수의 지속적 증가
 - 학습지원을 위한 e-Class 활용 강좌수가 2014년에 7,380개, 전체 강좌의 74.2%로 증가

다. 개선방안

1) 추진내용

- 전문인력 확보 및 역량 제고
 - CTL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학 전공 연구원 확충
 - 스마트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공학 전공자 채용
 - 스마트 교수법 연구개발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인력 확보(자체 혹은 외부위탁)
 - 교수-학습 지원 인력에 대한 정기적 재교육(자체 혹은 전문연수기관 위탁 교육)
- 교수 생애주기별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수 복무 기간 전반에 걸친 체계적 연수를 통해 수업 및 학생지도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수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 임용 직전 단계부터 직급과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수역량개발의 최적화 구현
- HUFSh형 스마트러닝 환경 조성
 - 온-오프라인 일체형(On-off Seamless) 교육방법
 - 전통 강의식 교육방법과 제한적 수준의 기존 온라인 교육의 접목을 넘어서서, 학습자 주도의 전면적인 온-오프라인 일체형 어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 플립트러닝(Flipped Learning)
 - 강의동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선행학습과 오프라인의 토론 및 심화학습을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새로운 수업모델을 개발하여, 어학교육의 수월성 및 효율성 제고

- 개방형 학습자원 활용
 - 무크(MOOC)¹⁶⁾, 실시간 화상수업 등을 통해 학내 학습자원과 외부 학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학습자원 활용프로그램 개발
- 스마트 교실 및 스마트 캠퍼스 구축
 - 스마트러닝에 필요한 교육인프라 조성
- 공감형 교수-학습 지원서비스 구축
 - 교육 환경 분석, 학습자 특성 분석, 강의평가 결과 분석 등 다양하고 심층적인 요구분석을 통해 교수 및 학생의 필요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 서비스 수요자가 인지적,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밀착형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서비스를 통해 교수 및 학생의 실질적 역량 향상 도모
- HUFS 맞춤형 통합학습정보지원시스템 구축
 - 각종 학습 관련 정보들을 개별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방식으로 제공하여 핵심 역량 개발의 내실화 추구
 - 각 학과의 전공,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의 각 영역별 학습자 역량 개발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개별 학생에게 제공하는 전달 체계 구축
 - 학생 개별 맞춤 정보를 통해 역량 개발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과학적인 학습 지원 체제 마련

2) 추진일정

가) 전문인력 확보 및 역량 제고

- 1차년도(2016학년도)
 - CTL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박사급 유급 연구원 확보
 - 스마트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전담직원 채용
 - 스마트 교수법 연구개발 용역 실시(교내 혹은 외부위탁)
 - 기존 교수-학습 지원 인력에 대한 재교육 실시
- 2-4차년도
 - 스마트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성과 분석
 - 스마트 교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연수 확대 실시

16) Massive Open Online Course, 온라인 공개수업

- 교수-학습 지원 인력에 대한 정기적 재교육 실시

나) 교수 생애주기별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차년도(2016학년도): 생애주기별 교원연수프로그램의 개발
 - 교수 생애 주기를 신입교수, 조교수 및 부교수, 정교수로 구분하고, 각 생애 단계별로 특성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세부 전략 수립
 - 전반적인 연수프로그램의 틀에 대한 정교화 작업을 기반으로 신입교원 연수프로그램(New Faculty Development Program, 이하 NFDP)¹⁷⁾ 개발에 집중하여 신입교원의 수업역량 및 학생지도 역량 혁신
- 2-4차년도: 생애주기별 교원연수프로그램의 추가 개발 및 내실화
 - 1차년도에서 개발한 NFDP를 시행하면서 보다 정교화하며, 이와 함께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인 IFDP(Innovative Faculty Development Program,¹⁸⁾ OFDP(Option Based Faculty Development Program)¹⁹⁾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시행

다) HUFS형 스마트교육 환경 조성

- 1차년도(2016학년도): HUFS형 스마트교육 기반 디자인
 - 스마트 교실 구축
 - 외국어교육에 특화된 스마트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어교육 강좌를 중심으로 기본 어휘 습득 및 회화 연습이 가능한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자기주도학습 환경을 구현
 - 스마트 ICT기반의 다양한 교육 솔루션을 개발하여 사전학습, 본시학습, 사후학습이 연계되고,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 교육 환경 구축
- 2-4차년도: 스마트교육 환경 고도화 및 수업 내실화
 - 스마트 캠퍼스 조성
 - 1차년도의 시범 사업을 기반으로 HUFS형 스마트교육 수업모형을 정교화하고 전공 언어별 콘텐츠 개발을 확대함과 더불어 스마트교육 촉진을 위한 교수-학습 인프라를 보완 확충

17) 신입 교수로서 외대의 교수-학습 인프라 및 학생 특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고, 교수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강의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생지도 및 상담 능력을 함양하는 몰입형 프로그램

18) 교수 경력에 따른 수업전문성과 학생상담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역량 기반의 연수프로그램으로서, 총 30시간 분량의 3단계 연수

19) 정교수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모듈 단위의 다양한 선택 중심 연수프로그램으로서 수업 및 학생지도 경험이 많은 교수들의 학생지도에 특화된 맞춤형 심화 연수

- 학생 간 오프라인 소그룹 학습활동을 촉진하며, e-Class와 SNS 등 소셜미디어 기반 학습 환경을 구축하여 수업 외 시간에도 학생과 학생, 교수와 학생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현 촉진

라) 공감형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 구축

- 1차년도(2016학년도): 공감형 교수-학습 지원 체제 확립([표 10] 참조)
 - 관행적인 단발성 서비스를 지양하고 교수와 학생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밀착형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수업 역량 및 학습 역량의 실질적 향상 기반 마련
 - CTL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학습코칭, 교육방법 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지속적인 주기별 연수 방안을 수립하여 외부 위탁 연수 및 자체 연수를 의무적으로 시행

[표 10] 공감형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구분	내용	비고
맞춤형 교수지원	Teaching Style, 수업환경 진단 교수방법 개선, 수업관련 상담 지원	지속적 Follow-up 실질적 역량 향상
밀착형 학습지원	Learning Style, 학습환경 진단 학습방법 개선, 학습부진 극복 지원	
수요자 경향 분석	연차별 요구 조사,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최적화 연구	
참여소통촉진활동	교수-학습 축제, 서비스 홍보 다양화 학습공동체 조성 지원	
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전문기관 연수, 자체 연수, 인력 충원	

- 2-4차년도: 공감형 교수-학습 지원체제의 내실화
 - 핵심역량 함양 및 학제 간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법 개발 및 전공별 교수법 선진화 등을 적극 추진하며 학문간 통섭, 교류의 활성화
 -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학업 능력 배양을 위해 학습역량 진단도구를 이용한 학습컨설팅을 강화하고 학문유형별, 학습영역별 요구에 따른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학습 지원시스템 구축
 - 학생과 학생,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수업 축제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협력적 지식 창출 기반 조성

마) HUFSS 맞춤형 통합학습정보지원시스템 구축

- 1차년도(2016학년도): 학습자 맞춤형 통합학습정보지원시스템의 설계
 -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중 학생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디자인

- 전공 외국어 기반 융복합 교육과정, GPS 3.0, HUFs 글로벌 에이전트에서 파생되는 각종 자료를 맞춤형 Data Crawling 방식으로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석, 제공하는 정보 환경 설계
- 수업에 필요한 학습 정보에서부터 적성 파악, 경력 개발, 개인별 포트폴리오, 글로벌 역량 정보 등 총괄적으로 개인의 역량을 점검하고 신장시킬 수 있도록 시범 적용
- 학생들이 정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학습정보지원 존(zone) 설치
- 2-4차년도: 학습자 맞춤형 통합학습정보지원시스템 운영 내실화
 - 맞춤형 통합학습정보시스템의 초기 운영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정보 시스템을 보다 정교화하고 학습자 역량 개발 및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
 - 1차년도에서 설치된 통합학습정보지원 Zone의 시범 운영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개선

라. 기대효과

- 교수의 강의 및 학생지도 전문성 개발의 체계화
- 스마트교육 환경에 기반을 둔 외국어교육의 새로운 수업모형 개발·적용으로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 강화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마련하고 학습자 개인의 요구와 역량 개발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

3. HUFS 글로벌 에이전트

가. 취지

-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관리 전담
 - 글로벌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정규·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총괄 컨트롤타워
 - 전담조직 설치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성과 극대화
- 전략지역전문가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 전략지역전문가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현지 연수 지원
 - 글로벌·실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자 후속 지원
- 해외 인턴십 및 연수와 취·창업 연계 지원
 - 해외 인턴십 및 연수를 취·창업과 연계하여 원스톱서비스 제공
 - 자매대학·기업·동문 네트워크 관리로 졸업생 해외진출 지원

나. 현황과 과제

- 통합적 조직(체계)의 부재로 인해 해외 교육프로그램 지원 업무가 부서별로 단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관련 업무가 경력개발센터/창업교육센터/국제교류팀 등으로 분산되어 유기적 협력이 곤란함.
 - 해외 취·창업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미흡
- 해외 현장연계교육 및 진로개발 프로그램 부족
 - 해외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필요
 - 학점인정 해외 비교과 프로그램 확대 필요

다. 개선방안

1) 추진내용

- 해외 교육, 연수 활동 지원 체제 일원화: HUFS 글로벌 에이전트 설치
 - 해외 취업·창업 졸업생들 간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운영
 - HUFS 글로벌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교내 유관 부서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CTL 3.0 스마트 교육, GPS 3.0 학습-생활-진로 상담 연계 강화
 - 자문 및 멘토링 지원 전담인력 충원

- 해외 현장연계 교육 활성화로 국제실무역량 강화
 - 세계시민 미네르바 교양교육, 외국어기반 융합전공교육, 현지 실무역량 중심 비교과 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 및 학점인정 절차 정비
 - 해외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 수요를 상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재학생 정규교육과정 및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
 - 해외 현장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확대
 - 전략지역전문가 HUFSS 아너스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2) 추진일정

가) 해외 교육, 연수 활동 지원 체제 일원화

- 1차년도(2016학년도): HUFSS 글로벌 에이전트 설치
 - HUFSS 글로벌 에이전트 설치 및 세부 운영 방안 마련(학칙 및 정관 반영)
 - 해외 현지 졸업생 네트워크 강화, 동문 기업인을 해외 취·창업 멘토로 위촉하고 해당 기업에서 해외 인턴십 실시
 - 맞춤형 글로벌 취업프로그램 개발, 글로벌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졸업생의 해외 진출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
 - 해외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2-4차년도: HUFSS 글로벌 에이전트의 안정적 운영
 - HUFSS 글로벌 에이전트 기능 정착 및 확산 방안 모색
 - HUFSS 글로벌 에이전트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한 해외 교육, 연수 활동 지원 시스템의 고도화

나) 해외 현장연계 교육 활성화로 글로벌 실무역량 강화

- 1차년도(2016학년도): 해외 현장연계 교과과정 개발
 - 재외 공관 및 기업 인턴십 운영 점검으로 효율성 극대화
 - 외국어 전공자를 위한 해외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형 교과목 개발 지원
 - 해외 언어연수와 인턴십을 연결하는 해외현지실무과정 개발 지원
 - 전략지역전문가 HUFSS 아너스 프로그램 시작
- 2-4차년도: 해외 현장연계 교과과정 확대 운영
 - 우수 사례 발굴 및 모델 확산
 -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들의 해외연수 및 인턴을 지원하는 모듈 개발 운영
 - HUFSS 아너스 프로그램 이수자 후속 지원 체제 구축 및 지원 규모 확대
 - 국가 전략지역 포함 해외 연수 및 인턴십 기관·기업 확대 및 지속적 관리

- 수요자 중심 맞춤형 글로벌 취업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 취업 지원 체계화

라. 기대효과

- 전담조직 설치로 글로벌 교육성과 및 졸업생 해외 진출 확대
- 해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계의 일원화로 학생들의 해외 취·창업 지원 효율화 및 취업률 상승
- 해외 교류협정대학과의 실질적 학술 및 학생 교류를 위한 협력관계 재정비
- 해외 현지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연계 교과과정 및 인턴십 활성화

4. 연구소

가. 취지 및 현황

1) 취지와 기본방향

가) 취지

- 우리 대학의 연구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관련분야의 학술발전을 주도
- 정부, 기업, 민간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제고
- 글로벌화와 정보통신혁명의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는 중점연구소 육성
- 연구소의 연구 성과와 인력을 활용한 교육기능 보완과 학문후속세대 양성

나) 기본방향

- 우리 대학의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방안 모색
-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제 수준의 중점연구소 육성
- 조직과 지원체계의 효율화, 개방화를 통해서 국제적 연구거점으로 운영

2) 현황과 문제점

가) 현황

- 현재 연구기관은 대학부속 ‘연구소’와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센터’로 구분
- 대학부속 연구기관은 외국어문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센터, 전문분야연구센터, 융합분야연구센터 등 분야별 ‘연구센터’와 산하 ‘연구소’로 편제하여 총 28개 연구소 운영
- 28개 연구소 가운데 1개 연구소가 국제전문학술지(SCOPUS) 발행, 18개 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혹은 등재후보지를 발행([표 11] 참조)
- 산학협력단 산하에 별도의 38개 연구센터 운영([표 12] 참조)

나) 문제점

- 외국학연구센터 폐지 후 우리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기관 부재
- 연구프로젝트 수주실적 미흡
- 이공계 연구소 침체
- 연구소 편제가 불분명하고²⁰⁾, 연구와 교육의 상호 연계 및 보완 기능 취약
- 국제지역연구센터 예하 지역연구소 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부재

20) 우리 대학은 대학부속연구기관을 ‘외국어문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센터’, ‘전문분야연구센터’, ‘융합분야연구센터’ 등 네 분야로 나누어 ‘연구센터’와 예하 ‘연구소’로 구분하고 있으나, ‘국제지역연구센터’ 외에는 상위의 ‘연구센터’가 실재하지 않고, 연구센터와 연구소 간의 연계 및 협력관계도 존재하지 않음.

[표 11] 한국외대 부속 연구기관 현황

연구소 편제		연구소 명칭 및 학술지 발간 현황
1	외국어문 연구센터	외국문학연구소(등재), 언어연구소(등재), 통번역연구소(등재), 외국어교육연구소(후보) 등 총 4개 연구소
2	국제지역 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센터(등재1, SCOPUS1), 일본연구소(등재), 중국연구소(등재), 동남아연구소(등재), 중동연구소(등재), 영미연구소(등재), 중남미연구소(등재), 한·중남미녹색연구센터(등재), EU연구소(등재), 동유럽발칸연구소(등재), 러시아연구소(등재), 인도연구소(등재), 아프리카연구소(후보), 중앙아시아연구소(연구소) 등 총 14개 연구소
3	전문분야 연구센터	역사문화연구소(등재), 법학연구소(등재), 경제경영연구소(연구소), 철학문화연구소(연구소), 언론정보연구소(연구소), 글로벌경영연구소(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연구소), 정보산업공학연구소(연구소), 환경과학연구소(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소(연구소), 국정관리연구소(연구소) 등 총 11개 연구소
4	융합분야 연구센터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총 1개 연구소

[표 12]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센터 현황(38개 연구센터)

연구센터 명칭	연구센터 명칭	연구센터 명칭
1 바이오산업용 단백질연구센터	2 바이오 융합 연구센터	3 NMR구조 연구센터
4 산화물연구센터	5 소재합성 연구센터	6 황사 및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연구센터
7 언어와 지식처리 연구센터	8 담화정보처리 연구센터	9 응용언어학 연구센터
10 음성언어 연구센터	11 디지털 언어지식콘텐츠 연구센터	12 데이터시각화 연구센터
13 한자문화 연구센터	14 번역학 교육 연구센터	15 문화간 소통 및 번역학 연구센터
16 다문화 연구센터	17 글로벌문화콘텐츠 연구센터	18 지역문화자원 연구센터
19 글로벌 창의산업 연구센터	20 기록학 연구센터	21 세계민속연구센터
22 아리랑 세계화 연구센터	23 교육공동체 연구센터	24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25 스페인·중남미 연구센터	26 브라질·앙골라·모잠비크 연구센터	27 브라질연구센터
28 아랍연구센터	29 아랍인문학센터	30 몽골연구센터
31 대만연구센터	32 실크로드 연구센터	33 국가브랜드 연구센터
34 국제협력전략센터	35 국제국방협력 연구센터	36 글로벌 안보협력 연구센터
37 외교연구센터	38 아시아 비즈니스 리서치 연구센터	

나. 연구소 편제 개편 및 지원시스템 개선

1) 편제개편 및 교육과의 연계 강화

가) 편제개편

- 실질적인 운영주체, 연구와 교육의 연계, 학문후속세대 양성, 예산투입의 효율성, 단과대 발전방안 등을 고려하여, ‘대학본부 부설(직속) 연구기관-단과대학 부설 연구기관-산학협력단 부설 연구센터’의 ‘연구원-연구소-연구센터’ 3급제로 편제 개편
- 현 ‘국제지역연구센터’는 ‘국제지역연구원’(가칭)으로 개명한 뒤 대학본부 직속 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집중육성

[표 13] 국내대학의 연구소 편제 사례

	연구소 편제
서울대	대학본부 직할연구원(8개)-주관대학연구원-연구소(cf. 인문대학: 인문학연구원 등 7개연구원-인문학연구원 예하연구소 16개) / 국가지원연구센터(40개), BK21플러스사업단, HK사업단
연세대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49개)-(단과)대학부설 연구기관(100개)-대학간연구소(16개) / 국가지원연구센터, BK21플러스사업단, HK사업단
고려대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8개)-단과대학 부설연구기관(안암215, 세종18) / 국가지원연구센터, BK21플러스사업단, HK사업단
성균관대	대학교 부설연구원(동아시아학술원, 성균나노과학기술원 등 2개)-캠퍼스부설 연구소(인문사회 5개, 자연과학 11개)-학부(단과대)부설연구기관(72개) / 국가지원연구센터(40개), BK21플러스사업단, HK사업단

나) 연구 및 교육의 유기적 연계시스템 구축

-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수연구자를 부설연구기관의 박사후연구원으로 임용하고 인건비 지원
- 대학원생을 연구과제 클러스터의 조교로 임용
- 학부생 연구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연구소 정기 콜로키움 및 세미나에 대학원생 및 학부생 참여유도

2) 지원시스템 강화 및 경쟁체제 도입

가) 현행 연구소 지원제도

- 현재 27개 연구소에 연구 공간 및 연 450만원의 지원금 제공

- 등재후보지 이상을 발행하는 연구소 중 상위 17개 연구소에 전임연구원 1인 제공 (연봉 2,400만원)
- 연구소 논문집 연 2편 발행 시 200만원, 연 3편 발행 시 150만원 추가 지원
- 연구소 주관(년 1회) 국내학술대회 개최 100만원, 국제학술대회 150만원 지원

나) 연구소 지원강화 및 차등지원 도입

- 외부연구과제 수주실적을 고려하여 연구교수와 책임연구원 확충
- 외부연구과제 연구비 전입액(오버헤드)의 연구소 지원금 증액
- 연구프로젝트 수주, 학술활동, 출판, 사회 및 교육서비스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비 및 공간 차등지원
-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일정기간 연구소 활동 및 수주실적이 저조한 연구소는 경고 조치를 취하고, 연구과제 수주실적이 우수한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센터’는 ‘연구소’로 승격

다. 중점연구소 육성방안: 국제지역연구원(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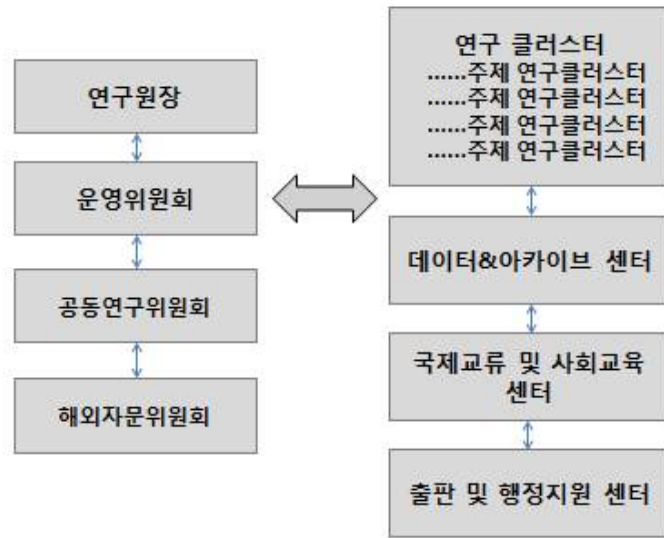
1) 취지

- 우리 대학의 연구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세계적 수준의 지역연구소 설립
- 세계 지역학 연구를 주도하고 정보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역학 연구모델 창출
- 연구원의 개방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 지역학 연구의 메카로 육성
- 정치, 외교, 경제, 사회문화 등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연구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싱크탱크(Think Tank) 기능 강화

2) 조직 및 운영

- 현 ‘국제지역연구센터’를 ‘국제지역연구원’으로 격상시킨 뒤 대학부설(직속)연구소로 집중지원하고, 신설 수준의 파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함.
- 국제교류와 공동연구를 지향하는 ‘허브연구소’로서 정부 및 민간기업,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소와의 교류 및 연계를 강화하여 **연구과제 수주능력을 대폭 제고함.**
- 국제지역연구원은 원장-운영위원회-공동연구위원회-해외자문위원회-연구센터 (Research Cluster)-데이터 및 아카이브센터-국제교류 및 사회교육센터-출판 및 행정지원센터로 구성함([그림 7] 참조).

[그림 7] 국제지역연구원(가칭) 조직도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의 50%를 국내외 대학 및 저명한 국책·민간연구소의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이들을 실제 운영에 참여시킴으로써, 개방적인 연구풍토를 조성
- 공동연구위원회
 - 연구원장과 연구원교수, 교내지역연구소 소장으로 구성하여 학술 및 연구과제 논의
- 데이터 및 아카이브센터
 - 산하 지역연구소의 원자료(raw data) 수집 및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 수행. 향후 빅데이터 분석 자료로 활용

3) 학술 및 연구 활동

가) 연구역량 제고

- 국제지역연구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명한 국내외 전문가를 국제지역연구원 교수로 초빙
- ‘국제지역연구센터’ 산하 지역 연구소들과 연계하여 주제 및 정책별 연구를 주도, 대형프로젝트 기획 및 수주

나) 학술회의 활성화

- 국제학술대회: 공동연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2회 이상 주제 및 정책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 콜로키움: 매일 콜로키움 개최, 대학원생 및 학부생 참여 유도
- 세미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수시로 세미나 개최

다) 출판 및 사회교육

- 현재 간행되는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를 SSCI급으로 승급시키고 국제지역연구 분야 국제저명학술지로 육성
- 국제지역총서 간행: 연구총서, 문고판 기획총서
- 소식지 ‘국제지역연구통신’ 발신
- 국제지역 시민강좌 운영(on-line & off-line강좌)

[표 14] 국내외 지역학관련 저명 연구소 사례([표 15]로 계속)

구분	설립목적	운영체계 및 특징
동경외국어대학 아시아아프리카 언어문화연구소 (ILCA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아프리카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해 새로운 인식을 제공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부과학성이 아시아·아프리카 관련 국제연구거점으로 선정하고 운영경비 지원 • 연구소 조직: 프로젝트 연구부, 정보자원이용 연구센터, 필드사이언스 연구기획센터 • 운영위원회는 외, 내부위원 과반수로 구성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동남아시아연구소 (ISE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정부에서 연구소 운영자금 지원 (2013년도 예산 한화 약 155억 원) • 이사회는 싱가포르 정부·재계·학계의 저명인사로 구성 • 방문학자 및 인턴십 제도 운영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있는 지역연구, 실용적인 지역교육, 소통하는 국제교류 • 지역연구의 국제적 허브(Global Hub of Area Studies)로 도약 <p>(1972년 연세대 교책연구원으로 설립, 현재 대학교 부설연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연구센터 (동남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인도, 중국, 중동·아프리카, 미국, 일본, 중남미, 캐나다, EU 등) - 주제별 연구부서 (비교문화, 정보사회, 정부와 기업, 지속가능사회, 평화안보, 해양문제, 국제개발협력, Air Power 등) - Yonsei-SERI EU Center - 리더십센터 • 2013년 총 23건 연구과제 수주, 93차례 학술회의 및 세미나 개최 • 1998년부터 주한외국대사를 초청 Diplomatic Roundtable Series 60차례 개최 • Yonsei-SERI EU Center: 2016년까지 EU에서 170만유로 지원, 연세와 삼성에서 매칭 펀드 제공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수준의 동아시아 지역 종합연구소 <p>(1957년 설립, 고려대 대학교 부설연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하에 HK동북아시아지역연구센터, 중국연구센터, 현대일본센터, 대만연구센터, 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 비교사연구센터, 아시아협력센터, 북한연구센터 운영 • 현재 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3개의 대형 연구과제 수행 중 • 현재 등재지 『아세아연구』 간행. 총서로 『공산권총서』, 『아연동북아총서』, 『민주주의총서』, 『한일공동연구총서』, 『중국연구총서』, 『동아시아연구총서』, 『인문교양총서』, 『번역총서』, 『북한총서』 등을 출간 중

[표 15] 국내외 지역학관련 저명 연구소 사례

구분	설립목적	운영체계 및 특징
<p>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AEA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될 동아시아 문화를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연구 • 연구와 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구모델 창출 <p>(2000년 설립. 성균관대 대학교 부설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 동아시아학과와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 연구기관: 대동문화연구원(大東文化研究院), 유교문화연구소(儒敎文化研究所), 成均中國연구소, 서베이리서치센터(SRC; 여론 조사 등 각종 사회학 기초데이터 제작 및 관련 연구 수행), 동아시아학 전문 자료정보센터 존경각(尊經閣) • 장기적인 학제간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Research Cluster를 중심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자료학연구, 한국사회장기변동, 동아시아사회경제사, 동아시아근대학술사상, 동아시아근대지식형성, 동아시아근대문예지식, 동아시아변화와 한중관계, 한국서양문화교류연구 등 • 학술지로 A&HCI인 <i>SJEAS</i>와 『대동문화연구』, 『유교문화연구』(국내판, 국제판), 『성균차이나브리프』 간행 • 현재 학술원 소속교수는 18명(외국인 석좌초빙교수2인, 교수1인), 연구교수 3명, 연구원 8명, 박사후연구원 4명. 행정실 및 존경각 행정 직원 11명 • 2010년 39개 연구과제 수행
<p>서울대 아시아연구소 (SNUA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과 주제의 결합에 기초한 창발적인 지식 창출과 공유를 통해서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구축 <p>(2009년 창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등 지역연구센터와 미중관계, 대중문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시민사회, 환경협력 등 주제 연구프로그램 운영 • 학술연구 활동, 국제교류, 학문후속세대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 • 2013년 5개 연구과제 수행 (연구재단 4개, 미래창조부 1개)

라. 기대효과

- 국제지역연구를 주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학 연구모델 창출
- 외부과제 수주실적 강화를 통해 연구소 자생력 및 대외경쟁력 제고
- 연구와 교육의 유기적 연계강화
- ‘국제지역연구원’을 첫 번째 대학부설(직속)연구원으로 안착시킨 뒤, 우리 대학의 특성에 부합하고 미래지향적인 ‘언어·정보 융복합연구원(가칭)’ 등을 대학부설연구원으로 육성

5. 기숙사 프로그램

가. 취지

- 기숙사를 단순한 주거공간에서 체험교육과 문화 활동의 생활교육공간으로 전환
- 기숙사 활동을 통해서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하고 소통능력을 증진
- 기숙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적 소양과 따뜻한 감성을 배양
- 기숙사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십과 공동체정신 함양

나. 현황

1) 우리 대학 기숙사 시설 및 기숙사 프로그램 현황

가) Globee Dorm(국제학사/ 서울캠퍼스)

- 정원: 총 662명(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로스쿨학생 포함)
- 기숙사 생활 목적
 - 금지와 자긍심을 바탕으로 규율과 절제 있는 공동생활 및 자치활동을 통하여 자주적, 국제적, 독창적 지식인을 양성
- 편의시설 및 기숙사 프로그램
 - 피트니스센터, 각종 휴게실, PC실, 열람실, 세미나실, 사생회실
 - 공식적인 기숙사 프로그램 없음

나) HUFS Dorm(외대 기숙사/ 글로벌캠퍼스)

- 정원: 총 1,932명(제1기숙사 208명, 제2기숙사 1,724명)
- 기숙사 생활 목적
 - 단순한 숙식처가 아닌 학문의 산실이자 인격형성의 터전
 - 면학분위기를 정착하고 금지를 부여하며,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명량한 학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
- 편의시설 및 기숙사 프로그램
 - 식당, 편의점, 코인세탁실, 커피전문점, 휴게실
 - 공식적인 기숙사 프로그램 없음.

2) 국내 대학 기숙사 프로그램 사례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학생생활관
 - 콜로키움: 유명연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지적 동기를 부여
 - 정기 음악회: 매년 두 차례씩 클래식, 뮤지컬, 오페라 등 연주회 및 공연 개최
 - 작은 음악회: 매년 네 차례씩 작은 음악회 개최
 - SPACE599: 사생들의 예술적 체험을 위해 기획전 및 개인전 유치
-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Residential College(RC)
 - 정규교육
 - 전인교육: 사회봉사, 문화예술, 체육
 - 국제화교육: 글로벌 리더십 교육, 외국어집중교육
 - 창의교육: 창의적 융복합 교육, 책임기 및 토론교육
 - 비교과학습
 - 전인교육: 공동체 인식 및 인성
 - 국제화교육: 문화적 다양성 체험, RC외국인 교수와의 활동
 - 창의교육: 현장 체험형 탐구프로그램

다. 개선방안

1) 교육

- 콜로키움
 - 교내 교수, 본교출신 유명인사, 각계 저명인사 등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적 체험을 제공하고, 미래의 진로탐색을 위한 동기를 부여
- 세미나 및 스터디 모임
 - 기숙사 내에 자율적인 세미나 및 스터디 모임 권장. 모범적인 모임에 대해서는 신청서와 일정기간의 증빙자료를 검토한 뒤, 지원금을 제공하여 기숙사내 면학분위기 조성

2) 문화 및 체육

- 동아리 활동
 - 기숙사 사생들의 자율적인 문화 및 체육동아리 권장. 교내 시설 및 기구 제공
- 전시회
 - 기숙사 식당 등에 전시시설을 마련하여 사생들의 자율적인 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

모하고 예술적 감성을 함양

3) 글로벌 소통

- Global-Zone 설치
 - 양 캠퍼스 기숙사내에 내, 외국인 사생이 자유롭게 만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
- 글로벌 동아리 활동
 -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체육 및 문화 동아리 활동 권장
- 글로벌 축제
 - 기숙사 거주 외국인 학생과 교원을 중심으로 자국 문화를 공유하고 선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글로벌 쿠킹 페스티벌: 각국 요리축제 개최
 - 글로벌 필름 페스티벌: 각국 영화 상영 및 영화관련 세미나 개최
 - 글로벌 문화의 날 행사: 중국의 날, 일본의 날, 인도의 날 등 각국 문화의 날 행사 개최

라. 기대효과

- 콜로키엄과 세미나 등 자율적인 학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계발하고 기숙사내 면학분위기를 조성
- 다양한 체육 및 문화 활동을 권장하여, 신체를 단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풍부한 예술적 감성을 함양
- 내외국인 교수 및 학생 간의 다양한 자치활동을 통해서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하고 소통능력과 공동체 의식을 배양

IV. 외국어학과 발전방향

1. 취지

- 학령인구 감소, 전공별 사회적 수요의 불균형, 그에 따른 입학자원의 부실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기대에 우리 대학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도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학'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발전전략을 제시함.
- 2014년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 통합 이후 추진되어 온 양 캠퍼스의 특성화 및 차별화 과정을 제도적, 내용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향후 교육부의 '특성화사업'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외국학 전공분야 및 교육 과정을 발굴하여 제시함.

2. 현황

- 외국어학과는 서울캠퍼스의 경우 5개 단과대(영어대학, 중국어대학, 일본어대학, 서양어대학, 동양어대학)에, 글로벌캠퍼스의 경우 3개 단과대(국제지역대학, 통번역대학, 동유럽대학)에 편제됨. 전자는 언어와 지역 중심이고, 후자는 기능과 지역 중심임. 이러한 편제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에서 유사중복성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음.
- 특히 13개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인도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의 중복은 양 캠퍼스의 차별화에 난제로 작용함.
- 서울캠퍼스
 - LD학부, LT학부, 국제학부 등 <실무역량 + 언어>라는 도식에 입각한 융복합 지향의 학부 신설 운영
 - 중국어대학과 일본어대학은 언어문화학부, 외교통상학부/융합지역학부 등 각각 두 전공 트랙으로 나누어 운영
 - 서양어대학 프랑스학부는 FATI(통번역), 응용어문학, 프랑스와 EU 등 세 전공 트랙을 개설함으로써 종전의 어문학 중심에서 실무역량 중심의 교과과정으로 개편 예정

- 글로벌캠퍼스
 - 실무언어능력에 바탕을 둔 기능중심의 통번역대학과 전략지역연구에 바탕을 둔 지역학 중심의 융복합형 대학 편제를 갖추어 옴.
 - 국제지역대학 <로컬리티 기반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 사업단>(프랑스학과, 러시아학과, 중앙아시아학과, 인도학과, 브라질학과)은 2014년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CK-II)에 선정되어 현재 융복합형 전공 트랙(이중전공)에 해당하는 <광역특화전공>을 신설 운영함.
- 결론적으로 현재 외국어학과들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문학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전반적으로 분과학문형에서 융복합형으로, 국가적 단위에서 초국가적 단위로 학제상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도가 앞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임.

3. 개선방안

가. 새로운 도전과 비전

- 지속적인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문학 교육의 위기, 글로벌화에 따른 지역어 비중의 감소, 이공계의 약진 등 현재 외국어학과가 처한 도전은 긴급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함.
- 외국어 교육의 메카로서 우리 대학은 자신의 역사적 소임을 더욱 공고히 함과 동시에 ‘외국학’의 새로운 위상 정립을 통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
-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개선을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는 발전전략으로 <3대 전략적 전공분야>를 개발하는 한편,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스쿨(School) 편제를 제안함.
-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선: 우리 대학의 교육 목적은 창의역량, 글로벌역량, 실무역량 등을 갖춘 이른바 ‘글로벌 융복합 인재’ 양성으로 요약됨. 이 목적에 부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양, 전공, 비교과 등 교육과정을 향후 역량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²¹⁾
- 전략적 전공분야의 개발: 현재 우리 대학의 특성화 방향에 부합하고 시대적 요구와

21) 교양과정은 인성과 인문소양 및 타문화 이해능력 제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을, 전공과정은 분석력과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 외국어능력의 고도화 및 융합전공을 통한 전문화를, 비교과과정은 현지 실무 능력 강화 등을 포함함.

향후 전망 및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을 주요 전공분야로 <지역인문학>, <광역지역학>, <문화융복합학>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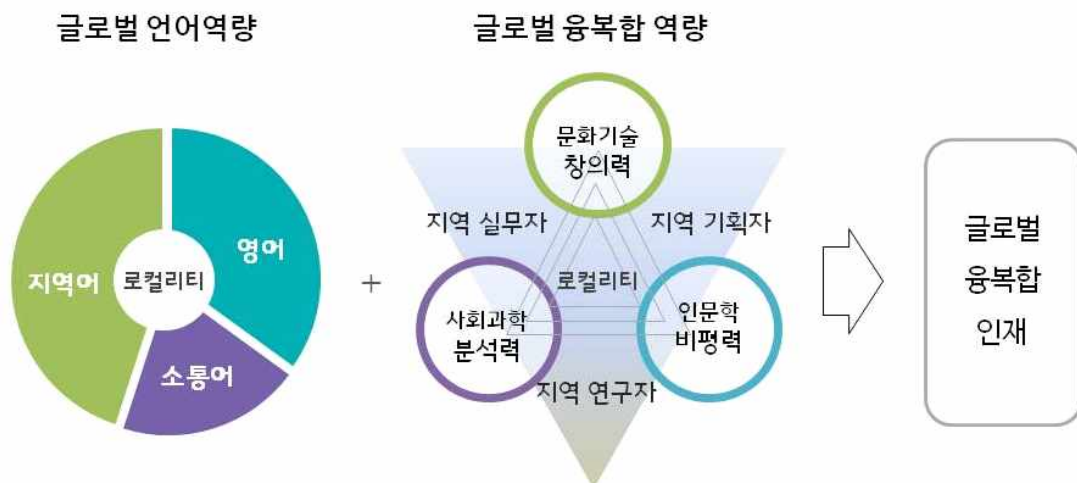
- 스쿨 편제 구축: 전략적 전공분야의 개발과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을 정원과 학제의 변화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이른바 스쿨 편제를 제안함.

나. 핵심 역량, 전공분야, 스쿨(School)

1) 핵심 역량

- 그동안 우리 대학 외국어학과 교육과정이 글로벌 역량에 방점을 두었다면 외대 비전 2020 이후 이와 더불어 실무역량 및 창의역량의 비중이 강화됨.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인문학적 사유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비평력 또한 글로벌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부상함.
- 오늘날 글로벌(globality) 역량은 해당 지역(locality)을 기반으로 한 보편적이고 특수한 역량을 포괄함. 우리 대학 외국어학과가 추구하는 글로벌 인재상은 지역 기반 융복합 역량을 갖춘 인재로 요약됨. 이러한 인재상 정립을 위해 이른바 지역 기반 융복합 역량 모델을 제안함.
- 지역(locality) 기반 융복합 역량 모델은 한편으로 세 개의 전공영역, 즉 인문학, 사회과학, 문화기술(CT)과 다른 한편으로 세 개의 역량, 즉 비평력, 분석력, 창의력을 각각 연결하여 아래와 같이 하나의 모델로 세공한 것임([그림 8] 참조).

[그림 8] 글로벌 융복합 인재의 역량 모델



- 글로벌 융복합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은 해당 지역(locality) 및 언어를 기반으로 한 분석력, 비평력, 창의력임.

- 지역 기반 분석력: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문제와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 해당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숙련이 필요
- 지역 기반 비평력: ‘외부자로서 내부자의 시선’을 견지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 인문학적 사고는 하나의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여러 각도에서 비판적으로 조망하면서 숨겨진 혹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불가능성의 영역까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질문하기’ 능력으로,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인문학 교육이 필요
- 지역 기반 창의력: 해당 지역 상황에 대응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사고를 현장에 적용할 줄 아는 이른바 문화기술(Cultural Technology, CT)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숙련이 필요
- 위 모델은 글로벌 인재, 즉 지역 실무자(사회과학+CT), 기획자(CT+인문학), 연구자(인문학+사회과학)들이 갖추어야 할 세부 역량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융복합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세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인식론적인 지침을 제공함.

2) 전공분야

- 지역인문학
 - 지역인문학은 세계 각 지역에 뿌리를 둔 문학, 예술, 사상, 종교, 역사 등 인문 지식의 일체를 가리키는 말로 최근 급증하는 국내 ‘인문학’ 수요를 외국어 전공의 틀 내에서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제안한 전공분야임. 지역인문학 교육과정은 융복합적 사유에 기본 토대가 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비판 정신을 두루 갖춘 인문학 기반 외국학 연구자/기획자 양성을 목적으로 함.
 - 현재 인문학은 각종 시민강좌가 잘 보여주듯 대학의 문턱을 넘어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인류의 지혜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창조경제의 시대를 이끌고 융합학문의 시대를 앞당길 핵심 분야로 재인식되고 있음. 요컨대 인문학의 위기가 인문학의 열풍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임. 그동안 우리 대학은 외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세계문학, 동서 고전, 종교, 예술이론 등 외국 사상을 국내에 소개하는 소임을 맡아 이를 성실히 수행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인

문학 담론의 지형도를 하나의 전공 트랙으로 설계하는 데 최적의 교육 여건을 갖춘. 단순히 인문학 열풍에 편승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를 우리 대학만의 고유한 인문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적절한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함.

○ 광역지역학

- 광역지역학은 국가적 차원의 지역 연구를 초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적용한 전공분야로 이른바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를 선도할 광역지역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함. 18-19세기에는 유럽 열강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주도해온 종전의 지역학은 국제관계에서 근본적으로 힘의 불균형을 전제하는 것으로 서양이 동양을, 제1세계가 제3세계를, ‘우리’가 ‘그들’을 관찰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제 지역학은 ‘타자’를 관찰하고 관리하는 학(學)에서 타자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으로 거듭나야 할 때임.
- 글로벌 시대에 들어서면서 세계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 경제 또는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광역지역 중심의 공동체 인식과 교류가 중시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는 국가적 단위를 넘어서는 초국적 단위의 지역전문가, 이를테면 ‘컨텍스트’ 속에서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는 광역지역전문가 양성이 필수 불가결함. 현재 45개 외국어 전공과 14개의 지역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대학은 이러한 시대적 및 국가적 소명에 부응하는 최상의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문화융복합학

- 문화융복합학은 문화예술, 언어정보, 콘텐츠 등 ‘세계 지역 문화’를 중심으로 한 다학제적이고 다분야적인 융복합 전공 영역임. 문화융복합학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를 이끌 문화산업기술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함.
- 오늘날 문화는 문자 중심에서 미디어 중심으로, 텍스트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음. 이처럼 미디어와 콘텐츠가 현대적 삶의 양식을 규정하는 문화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른바 ‘문화기술(CT)’의 중요성이 대두됨. CT는 문화예술과 테크놀로지가 결합한 융복합 분야로 향후 인류의 미래를 주도할 첨단 산업기술 6T(정보기술 IT, 생명공학기술 BT, 나노기술 NT, 환경공학기술 ET, 우주항공기술 ST, 문화기술 CT) 중 하나로 간주됨. 이와 같은 문화기술을 핵심 연구 분야로 삼고 있는 문화융복합학은 창조 경제 시대를 선도할 유망한 새로운 전공 영역일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과학기술적 접근을 요구하는 융복합적 전공 영역임.

- 우리 대학의 인재 양성 모델이 그동안 주로 <어문학 + 사회과학(경영학)>에 기초해 있었다면 이제 <어문학 + IT>로 새롭게 변신을 모색해야 할 때임. 문화융복합학은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적의 전략적 전공 분야임.
- 상술한 세 가지 ‘학’은 현행 언어 중심의 전공과정으로는 충분히 보완하기 어려운 지역 및 문화 중심의 융복합적 전공 영역으로 우리 대학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향후 우리 대학이 지속적으로 외국학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소위 교량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3대 전략적 전공분야를 중심으로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외국어학과의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3) 스쿨

-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는 그동안 차별화 노력의 결과로 캠퍼스별 특성화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그로 인해 형성된 분과학문적 장벽은 최근 학계 및 교육계가 요구하는 융복합형 교육과정 구축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과적 방안으로 스쿨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 스쿨은 학과의 소속대학이나 캠퍼스를 초월하여 정원 조정 없이 학과 간 협동 또는 공통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적합한 전공 시스템으로 정의함.
- 광역지역학 연계전공을 규모에 따라 스쿨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향후 스쿨 시스템을 학부나 단과대학의 형태로 발전시킴.
- 스쿨 시스템은 향후 정부 지원 사업에 양 캠퍼스 해당 학과들이 공히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대학의 실정에 부합한 제도적인 장치임.

다. 단계별 추진 전략

1) 중단기안

-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진행해 온 서울캠퍼스 발전 전략과 글로벌캠퍼스 특성화 전략을 별도로 진행하되 이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함. 외국어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함.
- 3대 전략적 전공분야(지역인문학, 광역지역학, 문화융복합학)를 교육 과정으로 구현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부 재원 마련을 통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학과 또는 일부 정원을 대상으로 특성화 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함.
- 지역인문학 전공분야는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 해당 외국어학과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정부 지원 사업에 대비하는 한편 전공편제 구축, 교과목 개발, 지원체제 확보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인문학 발전방안을 모색함.
 - 지역인문학 전공편제는 기존의 전공 트랙으로 보완하기 어려운 인문학 교육 강화를 위해 전공심화 트랙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인문학 전공 교과목은 크게 공통교과와 특화전공으로 구성됨. 공통교과는 지역인문학 전공자들이 공통으로 수강하는 교과목을, 특화전공은 제1전공에 따라 별도로 설계된 교과목을 지칭함. 공통교과는 특별강좌(사상과 언어 등)와 심층토론으로, 특화전공은 원서강독으로 구성됨. 지역인문학 전공심화 교과목 체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표 16] 참조).

[표 16] 지역인문학 교과목 체제(예시)

주제별 특별 강좌 (공통교과)	원서 강독 (특화전공)	주제별 심층 토론 (공통교과)	고전어 강좌 (공통교과)
인문고전 강좌, 계몽주의 사상가들, 20세기와 인문학 등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강의』 읽기, 『우파니샤드』 읽기,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읽기 등	그리스 비극과 그렉시트, 근대적 주체와 SNS, 표현의 자유와 샤를리 엡도 등	라틴어, 그리스어, 산스크리트어 등

- 지역인문학 전공은 학석사 연계 프로그램과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활성화 함. 인문학적 상상력과 비판 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창의시대를 선도할 우리 대학만의 소수 정예 인문학도 양성을 목적으로 함.

- 광역지역학 전공 분야는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 해당 외국어학과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광역전략지역군을 설계하고, 교과목을 개발하고, 지원체제를 확보함.
- 현재 국제지역대학 <로컬리티 기반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네 개의 광역전략지역(마그레브, 유라시아, 남아시아, 중남미)을 보완함.
- 향후 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요충지가 될 전략거점지역을 선별하여 광역지역학(광역전략언어) 연계전공을 개발함([표 17] 참조).

[표 17] 광역지역학(광역전략언어) 연계전공 체제(예시)

참여 학과	제 1전공	광역지역학 연계전공	기타
서울캠퍼스 외국어학과	전공토대	중동부유럽학, 중동·아프리카학, 인도-아세안학, 중남미학, 동아시아학 등	무역, 컴퓨터 등
글로벌캠퍼스 외국어학과	전공토대		

- 광역지역학(광역전략언어) 교과목 체제는 크게 네 개의 영역, 즉 공통교과, 특화전공, 제2외국어, 실무연수로 설계됨. 공통교과는 광역지역학 전공자들이 공통으로 수강하는 교과목을, 특화전공은 해당 전공 지역에 특화된 교과목을, 제2외국어는 해당 지역에서 소통어로 사용되는 언어 관련 교과목을 지칭함. 공통교과에서는 주로 사회과학 방법론이 다루어지고 특화전공에서는 해당 지역을 세부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필요한 학제적 접근이 이루어짐. 광역지역학 연계전공 교과목 체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표 18] 참조).

[표 18] 광역지역학 전공교과목 체제(예시)

공통 교과 (8학점)	트랙별 전공 (12학점)	제2전공 외국어 (12학점)	현지 연수 (10학점)
사회과학 방법론, 인문지역학 등	국제관계(법, 지정학), 마케팅 실무, 공공외교, 컬처노믹스, 정세분석과 시사토론 등	해당 광역 지역 소통어 (아랍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현행 7+1 제도 활용

- 광역지역학(광역전략언어)의 시작단계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스쿨 편제를 도입함.
- 문화융복합학 전공분야는 관련 전공학과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융복합형 학제 및 교과목 체제를 구상함.
- 글로벌캠퍼스에 ‘문화융복합학 학과/학부’ 신설의 전단계로 연계전공 또는 융복합전공으로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
- 문화융복합학 교과목 체제는 공통교과(문화/IT), 특화전공, 실무연수 등으로 다음과 같이 설계됨([표 19] 참조).

[표 19] 문화융복합학 전공 교과목 체제(예시)

문화 공통 교과	특화전공	IT 공통 교과	실무연수
문화기술학, 세계지역문화 등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스토리텔링, 스포츠, 관광 등	컴퓨터학, 프로그래밍, 언어정보, 인공지능 등	인턴십

2) 중장기안

- 지역인문학 전공을 전공심화의 중심 트랙으로 발전시킴과 더불어 학교 차원의 특별 지원을 제도화함([표 20] 참조).

[표 20] 지역인문학 전공심화 트랙(예시)

참여 학과	제1전공 (54학점)	지역인문학전공심화 (16학점)		부전공 (21학점)
		특화전공	공통교과	
서울캠퍼스 외국어학과	전공토대	원서강독	주제별 특별강좌, 토론 등	무역, 컴퓨터 등
글로벌캠퍼스 외국어학과	전공토대	원서강독		

- 광역지역학 스쿨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특히 국제지역대학과 동유럽대학을 광역지역학과 연계하여 편제 및 교과과정 개편([표 21] 참조).

[표 21] 광역전략지역언어(광역지역학) 스쿨 (예시)

중동부유럽	중동·아프리카	인도-아세안	중남미	동아시아
특화전공	특화전공	특화전공	특화전공	특화전공
제2외국어	제2외국어	제2외국어	제2외국어	제2외국어
공통교과				
실무연수				

- 문화융복합학과 현행 문화콘텐츠 연계전공을 학과/학부로 발전시킨 후 국제스포츠 레저학부, 한국학과 등을 포함하는 문화융복합 단과대학으로 발전시킴.
- 장기적으로 통번역학과를 제외한 외국어학과를 대상으로 학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광역 단위의 지역 기준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있음([표 22] 참조).

[표 22] 스쿨과 전공과정 (예시)

광역지역	학과	전공심화제/이중전공제 /연계전공제/융복합전공제	비교과
A 지역	X학과, Y학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심화제 전공(54) + 지역인문학(16) + 부전공(21) • 이중전공제 전공(54) + 상경 등 제2전공(42) • 연계전공제 전공(54) + 광역지역학 등 연계전공(42) • 융복합전공제 전공(42) + 융합전공(24) +제 2전공(30) 	현장연계교육과정, 해외 연수 및 인턴십 (1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학점 수를 의미함.

4. 기대효과

- 우리 대학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특성화의 방향 설정 및 외국어 교육의 메카로서 경쟁력 제고
-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전문가 양성
- 정부 재정 지원 방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V. 결론: 외국어학과 발전을 위한 제언

1. 교육개선추진위원회 운영

이 보고서에서 정리한 ① 교육과정 내실화, ② 교육·연구지원 강화, ③ 외국어학과 발전 방향의 각 취지와 추진방안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적 연구, 예산확보, 일정수립, 관계 부서 간 협조체제 구축 등을 담당할 특별조직으로 (가칭) “교육개선추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함.

2. 전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발전 노력

우리 대학이 외국어 교육 부문에서 기존의 선도적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교육수월성, 평판도 및 수요자 만족도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지속적 지도력 발휘와 행정 조직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이 보고서의 취지와 방안에 대한 관련 교수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개진,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

3. 정부재원 확보와 산학협력 확대

외국어학과 발전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재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정부재원을 확보하는 노력과 더불어 산업체들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참고자료>

단계별 수준별 어학교육

- 민찬규, 1999, “영어과 수준별 교육 운영 방안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제5권 2호, 229-252.
- 박기화, 1998, “영어과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Foreign Languages Education』, 제5권 1호, 105-131.
- 이근님 외, 2005,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진경애, 2006, 『글로벌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어 교육 혁신 방안』,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제7차 교육과정에서 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방안 및 교수·학습 자료」,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세미나 자료집 연구자료(ORM 98-4-4).
-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1999, *English Language Development Standards for California Public Schools: Kindergarten through Grade Twelve*, CA: CDE Press.
- 「문과대학 학사정보(2015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고려대학교.
- 「선수과목 지정제」, 2015년 5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 「수강편람(2015학년도 제1학기)」, 서울대학교.
- 「학부과정수강편람(2015학년도 제1학기)」, 연세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발전방안(가안)」, 2015년 6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 「FLEX 등급기준표」,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http://builder.hufs.ac.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2791&siteId=flex&menuType=T&uId=4&sortChar=A&menuFrame=&linkUrl=menu04.html&mainFrame=right> (검색일: 2015/05/31).
- <Chinese Four Year Academic Plan>, College Park, University of Maryland.
<http://www.arhu.umd.edu/sites/default/files/arhu/undergraduate/pdf/4YP-CHIN-GENED.pdf> (검색일: 2015/05/31).
- <Proficiency Objectives and Curricular Documents>, Language Center, Stanford University.
<https://web.stanford.edu/dept/lc/language/requirement/curriculum.html> (검색일: 2015/05/31).
- <Requirements for B.A. in Chinese>, School of Languages, Literatures, and Cultures, University of Maryland.
<http://sllc.umd.edu/chinese/undergraduate/major> (검색일: 2015/05/31).

현장연계교육

「2015년도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계획서」, 2015년 5월, 한국외국어대학교.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등)」, 2002년 8월 26일 개정, 교육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시안)」, 2015년 6월, 교육부.

「외대비전 2020」, 2015년 6월, 한국외국어대학교.

「현장실습운영매뉴얼」, 2013년 1월, 교육부.

한국외국어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http://job.hufs.ac.kr>

전략지역전문가 HUFS 아너스 프로그램

「2015년도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계획서」, 2015년 5월, 한국외국어대학교.

「(가칭)국가 전략지역언어 인력양성사업 시행 방안」, 2015년 3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시안)」, 2015년 6월, 교육부.

「C-School 성균관대학교 융합기반 Creative Informatics 인재양성 사업단 자료」, 성균관대학교.

College of Literature, Science, and the Arts(LSA) Honors Program, University of Michigan.

<http://www.lsa.umich.edu/honors>

Honors College, Purdue University.

<http://honors.purdue.edu>

Honors & Scholars, The Ohio State University.

<http://honors-scholars.osu.edu>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東京外国語大学).

<http://www.tufs.ac.jp/admission/>

University Honors Program, Indiana State University.

<http://www.indstate.edu/honors>

University Honors Program, University of Nebraska at Omaha.

<http://honors.unomaha.edu>

입시연계 5년 학·석사과정

「국제지역대학원 연계 5년 학·석사 지역전문가 양성과정, 가칭 Global Experts Scholarship Program」(보고서), 2015년 2월,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래위원회.

「2015학년도 수시모집인원표」,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비전 2020」, 2015년 6월, 한국외국어대학교.

「현행 학·석사연계과정 졸업학점 배분표(이중전공이수자 경우)」, 한국외국어대학교.

GPS 3.0

「2015년 자체평가보고서」, 2015년 4월, 한국외국어대학교.

「2015년도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계획서」, 2015년 5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비전 2020」, 2015년 6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방안」, 2015년 6월,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 관계부처 합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경력개발센터.

<http://job.hufs.ac.kr>

CTL 3.0

「2014 CTL Annual Report」, 2015년 1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2015년 자체평가보고서」, 2015년 4월, 한국외국어대학교.

「2015년도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계획서」, 2015년 5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비전 2020」, 2015년 6월, 한국외국어대학교.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결과」, 2015년 1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14년 2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News Letter」, Vol.1 No.1 - Vol.12. No.1,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HUFS 글로벌 에이전트

「2015년도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계획서」, 2015년 5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비전 2020」, 2015년 6월,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http://job.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교류프로그램 지원안내.

<http://oia.hufs.ac.kr>

연구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관련자료.

<http://www.asiaticresearch.org>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관련자료.

<http://snuac.snu.ac.kr>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관련자료.

<http://aeas.skku.edu>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관련자료.

<http://www.iewe.or.kr>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CSEAS), Kyoto University(京都大学 東南アジア研究所)

관련자료.

<http://www.cseas.kyoto-u.ac.jp>

Institute of South Asian Studies(ISA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관련자료.

<http://www.isas.nus.edu.sg>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ISEA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관련자료.

<http://www.iseas.edu.sg>

Research Institute for Languages and Cultures of Asia and Africa(ILCAA),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東京外国語大学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관련자료.

<http://www.aa.tufs.ac.jp/ja>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SOAS), University of London 관련자료.

<http://www.soas.ac.uk>

기숙사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기숙사 안내.

<http://dorm.snu.ac.kr>

연세대학교 기숙사 안내.

<http://yicdorm.yonsei.ac.kr>